

# 미국 장로교와 근본주의

박승규

옛신앙



박사학위논문

**미국 장로교와 근본주의,  
1850-1980**

지도교수 이 태 숙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박 승 규

2011년 8월

## 머리말

이 책은 원래 신학교가 아닌 일반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원래 의도하였던 바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서둘러 이 책을 출간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성경적 근본주의에 대한 끔찍한 오해와 왜곡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의도했던 바는 후에 보완될 것이다.

이 책은 성경적 근본주의를 위한 변호를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성경적인 근본주의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근본주의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그 자체를 말한다. 근본주의는 최근의 다양한 극단적인 종교적 현상들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법의 대부분은 근본주의에 대한 의해가 결여되어 있다. 근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근본주의의 기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이슬람이 아닌 미국의 개신교로부터 유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 근본주의에 관한 연구가 이슬람 근본주의에 관한 연구보다 많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회들은 성경적 근본주의와 다른 사상들 간에 있었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목적은 근본주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본주의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1937년에 멈춰 있다. 그러나 근본주의의 중요한 역사는 1937년에 칼 매킨타이어(Carl McIntire)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미국 장로교회와 근본주의 전통의 참된 계승자였다. 그의 정신은 디모테 토우(Timothy Tow) 박사에 의해 설립된 싱가포르의 성경장로교회와 원동신학대학(Far Eastern Bible College)에 의해 계승되었다. (2) 두 번째 목적은 근본주의라

는 명칭에 덧붙여진 거짓되고 부당한 비난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근본주의와 다른 ‘주의’들 간에 벌어진 논쟁의 주된 논점들은 항상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들에 집중되어 있다. 근본주의는 신복음주의의 침투가 아닌 성경적 분리(聖別)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우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기독교 우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복음주의자들과 정치가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동맹의 결과이다.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테러리즘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성경과 근본적인 교리를 위한 근본주의자들의 전쟁은 폭력이 아닌 그들의 저술과 설교의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참된 근본주의자들이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소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계 1:9)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진리와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이 시대에서 고수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몇 분들께 특별한 감사들 드려야 한다. 특별한 스승이셨던 이석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역사’라는 학문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셨다. 또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이태숙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주셨다. 논문의 심사위원장을 맡아 애써주신 손세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격려에 큰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박진빈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설교와 같은 글을 그나마 논문의 모습이 되도록 해 주셨다. 권태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석사학위 논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에도 참여해 주셨다. 김봉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셨으며, 길을 열어주셨으며, 지금까지 여전히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이시다. 물론 이 학위논문의 심사에도 참여

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옛신앙 출판사’의 김효성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사실 이 책은 김효성 박사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그분을 통해서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근본주의자가 되었다. *Soli Deo Gloria!*

# 목 차

- I. 서론 / 1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 9
  - 1.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 9
    - (1)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 9
    - (2) 노예제도와 제1차 세계대전 / 12
  - 2. 근본주의의 형성 / 15
    - (1)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특징 / 15
    - (2) 현대주의의 공격 / 19
    - (3) 근본주의의 반동 / 22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 31
  - 1. 근본주의 논쟁 / 31
    - (1) 교리논쟁 / 31
    - (2) 사회문제와 해외선교 / 47
  - 2.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 55
    - (1)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설립 / 55
    - (2)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설립 / 57
    - (3) 정통장로교회의 설립 / 59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 61**

- (1) 정통장로교 내부의 갈등과 원인 / 61
- (2)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의 출현 / 66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회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 71**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 71**

- (1) 국제기독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대립 / 71
- (2) 공산주의와의 대립 / 79

### **2. 근본주의의 쇠퇴 / 84**

- (1) 신복음주의의 출현 / 84
- (2) 전투적 근본주의 진영의 분열 / 92

### **3. 세속주의의 영향 / 97**

- (1) 세속화 논쟁 / 97
- (2) 미국장로교회와 1967년 신앙고백 / 104
- (3) 문화전쟁 / 113

## **V. 결론 / 117**

### **참고문헌 / 123**

### **영문초록 / 135**

# I. 서 론

오늘날에는 근본주의가 다양한 종교의 극단적 종교적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sup>1)</sup>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적 힘과 동맹하여 국가, 가족, 교회에 대한 현대주의적 흐름에 대한 투쟁을 추구하는 공격적이고 신념에 찬 종교운동으로 간주되고 있다.<sup>2)</sup> 대표적인 예로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거론된다. 1970년대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슬람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이후 최근까지 이슬람 근본주의가 크게 관심을 받아왔다. ‘이슬람’과 ‘근본주의’가 결합된 이 용어는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의미를 지니며, 근래에 들어서는 테러리즘과 결부시켜 일종의 비난 용어가 되었다.<sup>3)</sup> 그러나 이슬람 연구자들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슬람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가 될 수 없으며, 그 폭력성이 근본주의의 본질도 아니라고 지적한다.<sup>4)</sup> 이처

---

1) 다양한 종교들의 근본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책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Wilfried Rahrlich,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분쟁』, 이혁배 역 (서울: 바이북스, 2007); 이찬수 외, 『종교 근본주의: 비판과 대안』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1).

2)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종교연구』, 28 (2002), p. 29.

3)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연구』, 29 (2002), pp. 147-167. 엄한진은 아랍 근현대사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현상을 돌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주창하는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방식의 이슬람이나 제도화된 전통 이슬람과는 다른 새로운 이슬람(Neo-Islam)이다. 현재 이슬람 근본주의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샤리아(Shari'a)는 사실은 역사상 한 번도 실제 적용되는 법전의 형태를 띠지 않는 기술적 성경의 전례모음일 뿐이었다. ... 또한 지하드(jihad, 성전)나 샤히드(chahid, 성전에서 죽음)와 같은 개념도 80년대 이래 이슬람 세계가 연루된 전쟁들을 거치면서 군사와 전쟁에 결부되어 재부상한 개념이다.”

## I. 서론

럼 근본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상이한 인식이 존재한다.

근본주의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래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이슬람이 아니라 미국 개신교의 일파로부터 유래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와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가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들 각각의 근본주의는 그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이 매우 상이하며 독특하다.<sup>5)</sup> 이러한 이유로 근본주의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떠들썩한 언급들에 비해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 개신교회의 산물이고, 특별히 그 기원에 있어서 신학적이기 때문에 근본주의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개신교 내에서 근본주의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에 근본주의가 의미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가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sup>6)</sup>

---

4) 김영경, “이슬람 근본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37집 (1998), pp. 260-261. 서구 열강의 지배 하에 있는 이슬람 세계가 외세를 물리치고 재기하기 위해 추구된 이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종교전통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근대적인 문물이나 제도를 받아들여 이기를 원했던 세속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모든 개혁의 근본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전통에 두고 이 바탕 위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슬람주의였다. 이슬람주의는 다시 이슬람 개혁주의 혹은 혁신주의와 이슬람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로 구분된다.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5) 정태식·이철우, “탈레반을 통해본 예언자적 이슬람 개혁운동에 대한 일고찰,” 『담론』, 201 (2008), p. 71.

6) 홍치모,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신학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신학지남』, 제226호 (1990), p. 131.

## I. 서론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은 근본주의를 전근대적인 유물, 사회적 부적응의 산물, 편협한 반지성적 운동으로 규정하며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phenomena)으로 간주하였다.<sup>7)</sup> 이러한 연구 조류는 1970년대에 이르러 바뀌었다. 체계적인 근본주의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주의자 샌딘(Earnest R. Sandeen)은 1970년에 『근본주의의 뿌리』에서 1800년부터 1930년까지의 근본주의 역사를 교리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sup>8)</sup> 1980년대에 이르러 보수주의자인 마스든(George M. Marsden)은 『근본주의와 미국문화』에서 교리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인 관점을 통하여 1870년부터 1925년까지의 근본주의의 모습을 묘사하였다.<sup>9)</sup> 근본주의 진영의 내부자의 시각에서 행해진 연구도 출연했다. 근본주의자인 비일(David O. Beale)이 1986년 발표한 『성결을 위하여: 1850년 이래의 미국 근본주의』가 그것인데, 1850년부터 1986년까지의 근본주의 역사를 침례교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sup>10)</sup>

오늘날 ‘개신교 근본주의’로 인식되고 있는 근본주의의 특징들은 1937년부터 1980년 사이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7년부터 1980년까지의 근본주의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든은 자신의 연구

---

7) 이진구,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형성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근대성 수용양태를 중심으로,” 『종교학 연구』, vol 13 (1994), p. 109.

8) Ernest Sandeen, *Roots of Fundamen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9) George M.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0) David O. Beale, *In Pursuit of Purity: American Fundamentalism Since 1850* (Greenville: Unusual Publications, 1986).

## I. 서론

에서 이 시기를 제외시켰다.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대립에서 현대주의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명백히 한 샌든은 근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1920년대에 진행되었던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에 집중하였으며,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경계가 분명해진 이후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스든도 연구시기를 1937년까지로 한정하였는데, 근본주의에 대한 그의 서술이 자신이 속한 교단인 정통장로교회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36년 정통장로교회가 설립되었고 1937년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이 정통장로교회로부터 이탈하였는데, 마스든은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된 1937년 이후의 근본주의 역사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비일 역시 1937년 이후의 근본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비일은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근본주의 역사보다는 미국의 침례교회 내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20세기 초까지에 관심을 집중했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1937년부터 1980년까지의 근본주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현대 개신교 근본주의의 특징들을 규명하고, 근본주의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된 시기를 학자들은 대체로 제3차 대각성부흥운동이 시작된 1850년으로 잡는다. 이 무렵의 미국 개신교 내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보수주의적이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현대주의의 흐름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을 지켜 내기 위하여 세력을 결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의 근본주의는 초교파적이었다. 초기의 근본주의가 초교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 논쟁의 시기에 주요한 싸움들은 특정 교단들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이 바로 장로교와 침례교였다. 이 논문에서 근본주의 연구를 장로교에 한정하는 이유는 우선 근본주

## I. 서론

의 논쟁의 시기에 장로교와 침례교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근본주의 논쟁의 시기 이후의 근본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은 모두 장로교 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37년 이후에 등장한 전투적 근본주의나 1948년에 시작된 신복음주의는 모두 장로교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로교와 관련된 근본주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근본주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미국 내의 주류 교단들 내에서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세력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 두 세력들 간에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 논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근본주의와 현대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 개신교의 주류 교단들 중에서 근본주의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곳이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CUSA)였다. 미국장로교회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주류 교단들 중의 하나였으며, 그 이후로도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주요무대가 되었다. 후에 등장하게 될 전투적 근본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 모두는 미국장로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 연구에 있어서 장로교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후 근본주의의 발전과 변화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계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22년부터 시작된 미국장로교회 내의 근본주의 논쟁은 1936년에 일단의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장로교회를 떠나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를 설립함으로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일단의 근본주의자들이 1937년 정통장로교회를 떠나 성경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 BPC)를 설립했다. 성경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호전성(好戰性)으로 인해 후에 '전투적 근본주의자들'로 불리게 된

## I. 서론

다. 이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이 오늘날 근본주의의 평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948년은 근본주의 진영에서 분리되어 나온 신복음주의 운동이 본격화 된 해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기존 근본주의자들의 ‘분리주의’를 거부하고, 변혁모델에 근거를 둔 ‘침투’를 기본 전술로 채용하고,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복음주의는 1960년대에 이르러 ‘기독교 우파’의 성향을 띠게 되었으며, 정치세력과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였다. 1980년은 기독교 우파가 세력을 결집하여 공화당의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해로서 특기할 만하다.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은 다른 영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1948년은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이 대외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서 주목된다.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은 이 해에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근본주의자들의 전투영역을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시켰다. 1960년대에는 미국 개신교 내에서 세속화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 세속화 논쟁이 진행되는 중에 미국장로교회는 「1967년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 이 신앙고백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현대주의 세력이 미국장로교회를 공식적으로 장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은 1850년부터 1921까지의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을 다룬다. 우선 미국장로교회 내에 존재하였던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때로는 충돌하였던 두 집단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이 두 집단 간의 반목은 그 후 미국장로교회 내에서 전개되었던 근본주의 논쟁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 후에 미국장로교회가 노예제도와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핀다. 특별히 노예제도는 당시 미국장로교회가 남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근본주의의 형성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당시 근본

## I. 서 론

주의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현대주의의 공격과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근본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근본주의’라는 용어의 기원과 ‘근본주의 5개 신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장의 끝에서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근본주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22년부터 논쟁의 결과로 발생한 장로교회의 분열이 일단락 된 1947년까지를 한 시기로 묶어 서술한다. 이 장은 미국장로교 내에서 진행되었던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과 그 결과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미국장로교 내에서 진행되었던 근본주의 논쟁의 핵심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리논쟁을 서술하고, 그 후에 당시의 사회문제와 해외선교에 현대주의와 근본주의가 각기 어떤 견해들을 가졌는지 서술한다. 그리고 나서 교리논쟁과 교단 내의 주도권 싸움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미국장로교의 분열과정을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새로운 선교부인 ‘장로교독립선교부’ 그리고 새로운 교단인 ‘정통장로교회’의 설립과정과 그 의미도 서술한다. 그리고 정통장로교회가 설립된 지 일 년 뒤인 1937년에 정통장로교회가 다시 분열하여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이 형성된 과정을 서술한다.

IV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부터 1980년까지 근본주의의 변화와 세속주의에 대해 서술한다. 우선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활동과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다음 근본주의의 쇠퇴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우선 이 시기에 등장하여 상당한 세력을 얻는 신복음주의가 어떤 논지에서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발전시켜나갔는지 서술한다.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투적 근본주의

## I. 서론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들에 관하여 살펴는데, 이 분열들로 인해 근본주의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서는 세속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20세기 중기에 있었던 근본주의 논쟁은 20세기 후기에 이르러 미국 개신교 내에서 세속화 논쟁으로 재연되었다. 미국 내에서 세속화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고, 세속화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1967년 신앙고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이 미국장로교 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서술한다. 그 후에 기독교 우파와 관계된 ‘문화전쟁’을 낙태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와 관련시켜 서술한다.

V장에서는 결론으로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명백한 근본주의의 특성들을 지적하며, 근본주의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한계와 근본주의의 폭넓은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 1.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 (1)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미국에서 스스로를 장로교회라고 부른 교회들은 1640년대와 1650년대에 뉴욕 주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1680년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Scotch-Irish) 이주민들이 아일랜드의 라간(Laggan) 노회에 메릴랜드(Maryland)와 버지니아(Virginia)에 목사들을 보낼 것을 요청하자 라간 노회는 1683년 마케미(Francis Makemie) 목사를 파송하였다. 마케미 목사는 ‘미국장로교회의 아버지’로 불린다. 마케미 목사는 1706년 필라델피아의 첫 노회(Presbytery)가 조직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up>11)</sup> 그로부터 10년 뒤인 1716년에는 대회(Synod)가 조직되었다.<sup>12)</sup> 초기 미국장로교회는 1706년의 첫 노회 이후 1729년까지 공식적인 신앙의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장로교회의 경우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뉴 캐슬(New Castle) 노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목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용하며 서명하도록 요구할 것을 대회에 요청하였다.<sup>13)</sup> 대체로 보수적이었던 스코

---

11) James H. Smylie,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Louisville: Geneva Press, 1996), p. 39.

12) Lefferts A.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p. 63.

13)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A History*

## 1.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은 신앙고백을 수용하며 서명하는 것에 찬성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보다 관용적이었던 뉴잉글랜드 계통의 사람들은 서명에 반대하였다.<sup>14)</sup> 이 문제에 대한 양자의 합의의 결과로 1729년 9월 19일에 「수용법규」(The Adopting Act)가 대회에서 인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수용법규」가 채택되었다고 해서 모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목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용하며 서약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서약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수용하는 엄격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요한 교리에만 동의하는 느슨한 ‘서약’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했다.<sup>15)</sup>

느슨한 서약파와 엄격한 서명파는 ‘대각성부흥운동’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sup>16)</sup> 느슨한 서약파는 부흥에 찬성하는 ‘부흥파’로, 엄격한 서명파는 부흥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던 ‘반부흥파’로 불리게 되었다.<sup>17)</sup> 대각성부흥운동이 침체되어 가는

---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p. 334. 장로교(Presbyterian Church)는 장기의회(Long Parliament: 1640-1660) 기간에 개최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1643-1649)를 통해 장로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 「대요리문답」(*Larger Catechism*) 그리고 「소요리문답」(*Shorter Catechism*)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은 현재 미국의 장로교회들은 물론이고 한국 장로교회들의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p. 64.

15) 김길성,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신학지남』, 제237호 (1993), pp. 147-49.

16)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pp. 365-369. 미국 내에서 대각성부흥운동(The Great Awakening)은 몇 번에 걸쳐 일어났다. 장로교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제1차 대각성운동(1734-1750)이었다.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강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며 교리보다는 생활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부흥파는 이러한 흐름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반부흥파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sup>18)</sup> 부흥파와 반부흥파의 결정적인 충돌은 부흥파의 지도자격인 길버트 테넨트(Gilbert Tennent)로부터 시작되었다. 테넨트는 1738년에 설립된 뉴브런스윅(New Brunswick) 노회 소속 목사였는데, 1740년 3월 8일 펜실베이니아 노팅엄(Nottingham)에서 「회심하지 못한 성직자의 위험」(The Danger of Unconverted Ministry)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반부흥파에 속한 목사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응전으로써 반부흥파의 목사들은 테넨트를 ‘새로운 빛’(New Lights)라고 부르으로써 그에게 이단의 꼬리표를 달아주려고 했다. 존 핸콕(John Hancock)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사의 위험」(The Danger of Unqualified Ministry)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테넨트의 설교를 반박했다.<sup>19)</sup> 이러한 충돌은 1741년에 절정에 달했는데, 1741년 대회 회원들은 뉴브런스윅 노회를 더 이상 대회에 소속된 노회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1745년 뉴브런스윅 노회는 뉴욕과 뉴캐슬의 노회와 연합하여 뉴욕 대회(New York Synod)를 결성하였다. 이제 미국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대회와 뉴욕 대회라는 완전히 독립되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두 개의 파벌로 존재하게 되었다. 반부흥파로 이루어진 필라델피아 대회는 ‘구파’(Old Side)로, 부흥파의 뉴욕 대회는 ‘신파’(New Side)로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구파는

---

17) 홍철, “미국장로교회의 분열에 나타난 메이첸과 매킨타이어의 의견 차이들,” 『역사신학논총』, 김영재교수은퇴기념논문집: 제7회 논문발표회 발표논문 (2003), p. 348.

18)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pp. 67-69.

19) 신종철, 『한국장로교회와 근본주의』 (서울: 그리스심, 2003), pp. 34-38.

## 1.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구학과’(Old School)로, 신과는 ‘신학과’(New School)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학과는 칼뱅주의의 교리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신학과는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었다. 19세기 신학과의 특징은 미국을 “복음주의적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윤리와 도덕의 혁신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은 부흥운동이었고, 교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sup>20)</sup> 미국장로교 내에서 벌어졌던 근본주의 논쟁의 시기에 이르러 구학과는 대체로 근본주의로, 신학과는 현대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sup>21)</sup>

### (2) 노예제도와 제1차 세계대전

신학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노예제도 문제도 미국장로교회의 행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학과 중에서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자들이 있었고 구학과 중에서도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신학과는 노예제도에 반대하였으며 구학과는 노예제도에 찬성하였다. 특히 구학과 중에서 남부에 소속된 대다수의 성직자들은 노예제도를 성경적 행위로 옹호하였다.<sup>22)</sup> 노예제도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1837년부터 1869년까지 미국장로교회는 구

---

20) George Marsden, “The New School Heritage and Presbyterian Fundamentalism,” in *Pressing Toward the Mark: Essays Commemorating Fifty Years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36-1986*, edited by Charles G. Dennison & Richard C. Gamble (Philadelphia: The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86), p. 171.

21) 그러나 이 경계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920년대에 뉴브런스윅 노회에는 많은 현대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근본주의 진영의 대변자였던 그래삼 메이첸 역시 뉴브런스윅 노회 소속이었다.

22)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pp. 109-111.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총회와 신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총회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기간에 구체적으로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1853년과 1855년 신학파 총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자, 1858년 남부의 21개 노회가 총회를 탈퇴하여 “미국장로교 연합대회”(United Syno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조직하였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1861년에 필라델피아에서 구학파의 총회가 열렸는데, 구학파에는 많은 수의 남부출신들이 머물러 있었다. 이 총회에서 북부연방정부를 지지한다는 안건이 채택되자 남부출신의 총회 대표들이 모두 퇴장하였다. 47개의 구학파 남장로교 노회들이 구학파의 “남부연합정부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Confederate State of America) 총회를 결성하였다. 이제 장로교는 남과 북에 각각 구학파와 신학파가 존재하는 네 개의 파별로 존재하게 되었다. 1864년에 남부에서는 신학파가 구학파에 흡수되었는데, 남장로교의 신학파와 구학파 총회들이 합병하여 남부의 “미합중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조직하였다. 1869년 북부에서도 구학파와 신학파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남부에서처럼 신학파가 구학파에 흡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파벌들이 통합을 하였지만, 한 교단 안에 구학파와 신학파가 공존함으로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sup>23)</sup>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미국의 경우 전쟁이 미국의 영토 내에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파괴나 인명의 손실이 유럽만큼 크지는 않았다. 미국의 교회는 유럽에서처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교인의 증가 수치

---

23)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124.

## 1.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

는 대체로 정체되었다. 1800년의 전체 개신교의 교인비율은 6.9%, 1850년에는 15.5%, 1900년에는 35.7%, 그리고 1910년에는 43.4%로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은 그 수치가 정체되었다. 이것은 1914년 이후의 이민(移民)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한 해에 유럽으로부터 100만명 이상씩 유입되던 이민인구가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민인구의 중단은 미국 내 교인 수의 정체로 이어졌다.<sup>24)</sup> 그러나 미국장로교회도 상황은 미국 내의 다른 주류 교단들과 조금 달랐다. 1800년부터 1830년까지 장로교회는 교인이 2만명에서 17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다.<sup>25)</sup> 1901년에 이르러서는 교인의 수가 100만명, 1910년에는 131만 5천명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18년에는 160만 4천명으로 교인이 증가하였다.<sup>26)</sup> 미국장로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이민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는 아니지만 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에 미국의 교회들은 미국의 중립선언을 지지하였으며, 전쟁에 대한 책임은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모든 기독교인이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당시 보수주의적인 장로교인이었던 메이첸은 해양무역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독일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영국의 태도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제국주의를 악마적인 것으로 보아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반대하였

---

24) Kenneth Scott Latourette, 『기독교사(하)』,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pp. 595-98.

25) 손병호, 『장로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0), pp. 369-79.

26)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adherents.com>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으며,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부득이하게 참전해야 할지라도 전쟁을 통해 미국이 군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했다.<sup>27)</sup> 반면 1916년에 미국장로교회 성직자의 대다수는 자위(自衛)를 위한 무장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평화가 도래했을 때 강한 미국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교회들은 1917년 봄에 있었던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지지하였으며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회들은 군목들을 파송했으며, 적십자를 후원하였다.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교적인 속성을 설교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는 데 일조하였다.<sup>28)</sup>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또 다른 십자군 전쟁으로 간주했다.<sup>29)</sup>

## 2. 근본주의의 형성

### (1)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특징

‘근본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 낱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근본’은 어떤 것을 세울 수 있는 바탕 또는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것을 말한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는 ‘본질’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영감(靈感)되었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며, 삼위일체(三位一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적인 속죄(贖罪)

---

27) 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7), pp. 244-48.

28)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pp. 446-447.

29) 유재덕, 『기독교역사』 (경기도 안양: 브니엘, 2008), p. 402.

## 2. 근본주의의 형성

에 관한 교리들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한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근본주의와 상반되는 위치에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기독교’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주의’라는 용어를 수용하였다. 현대주의 역시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적인 특징 또는 생각의 질, 표현, 기술의 형태 등을 의미한다. 현대주의자들은 교의(敎義)와 예식(禮式)으로 표현되는 기독교의 신앙이 시대에 뒤진 역사, 시대에 뒤진 과학, 부적합한 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방해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많은 영역에서 ‘비평가들’로 언급되었으며, 자신들이 성경비평학과의 제자로서 그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임을 내세웠다.<sup>30)</sup> 박형룡은 현대주의가 20세기 초에 이미 기독교의 적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를 현대적 범주에 맞도록 재진술”해주는 신학이라고 정의했다.<sup>31)</sup> 비일은 현대주의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열하였다.

(1) 성경에 대한 상대주의적 견해 (2) 인간의 생득적 선함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 (3) 역사에 의해 제한되는 성경과 기독교 (4)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 그 결과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사이에 격차가 사라지고 범신론적 경향으로 기울어짐 (5) 진화론과 인간 발전에 관한 낙관론 (6) 인간의 개성과 그것의 발전에 대한 관심 (7) 실용적인 사업을 우선하는 신학 (8) 죄에 대한 낮은 견해 (9) 사회에 대한 강조 (10) 교회의 교리에 대한 무시 (11) 그리스도의 인성 강조와 그의 신성에 대한 무시 또는 부인 (12) 속죄에 대한 도덕감화론적인 관점 (13) 보편구원론 (14) 성경의 기독교보다 종교성을 더 강조함 (15) 정통성을 향한 냉담함 (16) 합리주의 (17) 기독교를 문화와 동일시함 (18) 삼위일체에 대한 양태론적 견해.<sup>32)</sup>

---

30) A Lover of Truth. *Why Bother With The Bible?: Fundamentalism Versus Modernism* (Edinburgh: Lindsay & Co., 1955), pp. 6-8.

31) 박형룡, “현대신학의 동향,” 『신학지남』, 제132호 (1966), p. 5.

32)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84.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현대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현대문화의 규범들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기독교를 현대문화와 조화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하였다. 현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재해석을 공격했던 근본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sup>33)</sup> 아마도 현대주의가 없었다면 근본주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주의는 특히 이신론과 진화론, 그리고 성경비평에 대항하였는데, 미국의 개신교 내에서 서서히 형성된 현대주의의 공격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다.<sup>34)</sup> 정통 기독교에 대한 현대주의의 공격이 없었다면 ‘근본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개혁주의,’ ‘칼뱅주의,’ 혹은 ‘복음주의’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근본주의는 현대주의라는 종교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특정 시대의 산물이지만 그 자체는 시대적 가치 중의 하나이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특징을 지닌다.<sup>35)</sup> 근본주의자들은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사이에서 진행된 논쟁의 핵심은 근본주의 혹은 현대주의가 기독교의 교리와 정통성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정통성의 근거인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비일(David O. Beale)은 근본주의에 대하여 ‘조건 없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복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36)</sup> 근본주의자이든 근본주의

---

33) Mark A.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pp. 373-376.

34)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ed.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s.v. “Fundamentalism.”

35) 이경재, “근본주의의 철학적/정신분석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vol 59 (2007), p. 238.

36)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3.

## 2. 근본주의의 형성

에 반대하는 사람이든, 근본주의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근본주의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즉 그들은 모두 근본주의와 정통의 기독교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한다. 근본주의자들은 근본주의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던 ‘옛 신앙’의 연장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근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주의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원초적인 기독교와 동일한 것이었다.<sup>37)</sup> 한국의 신학자들 역시 근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이나 교리가 아닌 근본주의자들의 분리주의적 행태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sup>38)</sup> 박형룡은 근본주의를 기독교 자체로 단언하였다. 그는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과기독교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 만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정의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sup>39)</sup>라고 진술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인 정통성은 현대주의보다는 근본주의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대주의자들은 근본주의의 기독교적인 정통성을 인정하고, 또 그 정통성이 기독교의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았으면서도, 기독교는 현대에 적응해야 하며 현대의 용어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주의 신학자 레이크(Kirsopp Lake)는 근본주의와 정통 기독교는 동일한 것으로 전혀 새롭고 이질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

37) Frank Goodchild, *Twenty Questions: What, Why and How?* n.p.: General Committee on Fundamentalism Within the Northern Baptist Convention, 1924, p. 7.

38) 박용규,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p. 401.

39) 박형룡, “근본주의,” 『신학지남』, 제119호 (1960), p. 16.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주의를 예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신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지의 산물로 보았다. 그는 근본주의가 현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근본주의가 틀렸다고 보았다. 그는 “그러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이지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 성경과 교회의 신학의 체계 (*corpus theologicum*)는 근본주의 편이다. 그러나 나는 근본주의자가 틀렸다고 생각한다”<sup>40)</sup>라고 서술했다.

근본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현대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기독교의 몇 가지 근본적인 교리들을 위해 기꺼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근본적인 교리들은 대개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의 사실성,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포함하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투쟁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신교 보수주의자들과 분명히 구분된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지만 근본주의자들에 비해 전투적인 성향이 결여되어 있다. 근본주의자들의 이러한 전투적 성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었다.<sup>41)</sup>

### (2) 현대주의의 공격

현대주의는 진리의 탐구에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과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며,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한다. 이성에 대한 강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종교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

40) Kirsopp Lake, *The Religion of Yesterday and Tomorrow* (Boston: Houghton Mifflin, 1925), pp. 61-62.

41) George M. Marsden,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Belmont: Wadsworth, 2001), p. 193.

## 2. 근본주의의 형성

‘이성주의’(rationalism) 혹은 ‘합리주의’는 근대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sup>42)</sup> 코페르니쿠스(Nichola Copernicus)의 지동설을 기점으로 시작된 과학적 우주론은 갈릴레이(Galileo Galilei)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뉴턴(Isaac Newton)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다. 뉴턴은 1687년에 『물리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에서 ‘중력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우주 전체에 걸쳐 작용하는 기본 원리로 생각하였다. 자연법칙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사람들은 우주를 불변하는 자연법칙에 의해 움직여지는 하나의 기계적인 구조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이성에 의해 발견된 자연법칙의 원리는 많은 다른 학문영역에 적용되었다. 특별히 합리주의 철학은 계시에 대한 자료 없이도 이성에 의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의 고유한 능력을 강조하였다. 합리주의 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였는데, 그의 철학의 출발점은 자신의 의식(consciousness)과 사고하는 능력 이외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 있었다. 데카르트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모두의 존재를 믿었지만,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신(神)과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사상은 독자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

42) 류대영, 『미국종교사』 (경기도 파주시: 청년사, 2007), p. 416.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비평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현대주의’(modernism)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907년 교황 비오 10세(1835-1914)가 발표한 「참으로 개탄한 만한 이탈」(Lamentabili Sane Exitu)이라는 교령(decree)을 통해서였다. 비오 10세는 현대적 요소를 수용한 사람들을 ‘현대주의자’(modernist) 또는 ‘상대주의자’(relativist)라고 명명한 후, 65개의 오류를 나열하면서 현대주의를 비판하였다. 현대성의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교황으로부터 이름을 얻고 비난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 위협이 될 정도로 유행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현대주의’라는 명칭은 그동안 사용되어 온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경향이 있었다.<sup>43)</sup> 데카르트는 기독교를 직접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전제를 기독교를 거부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신론(理神論, Deism)은 이러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17세기에 잉글랜드에서 형성되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신적 개입이 없이 자연법칙에 따라 계속 운영되었다. 신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부재 중의 신’이 되었다. 결국 이신론은 신적인 계시나 이적들을 부인하게 되었다.<sup>44)</sup>

이신론 이후에 성경의 창조기사를 공격하며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 사상은 진화론(進化論, Theory of evolution)이었다. 진화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1859년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이 『종의 기원에 관하여』(On the Origin of Species)를 출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남북전쟁 때문에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남북전쟁 후에도 진화론은 단지 학자들 간의 문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871년에 다윈의 『인간의 혈통』(Descent of Man)이 출판되자 죄의 본질과 기원이 문제가 되어 신학 분야에서 진화론 논쟁이 본격화되었다.<sup>45)</sup>

19세기에 유행했던 성경비평주의(Biblical Criticism)는 이신론이나 진화론보다 기독교에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성경비평주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하였는데,

---

43)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pp. 377-378.

44) Paul Ferguson, *Church History II*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2008), p. 75.

45)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80.

## 2. 근본주의의 형성

성경연구에 비평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sup>46)</sup> 현대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중에 터득한 경험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이 영국과 독일에 이미 팽배해 있었고,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 미국의 신학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부터 로마가톨릭의 ‘교회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성경의 권위’를 주장해 왔다. 성경의 권위는 그 책의 재료가 아닌 그 책에 쓰인 말에서 유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축자완전영감설(Verbal Plenary Inspiration: VPI)<sup>47)</sup>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신앙과 도덕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그리고 지리적인 모든 면에서 무오(無誤, inerrancy)하고 무흠(無欠, infallibility)하다’고 믿는다. 성경의 축자완전영감설을 고수하고 있던 보수주의자들이 성경비평주의와 충돌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sup>48)</sup>

### (3) 근본주의의 반동

근본주의는 미국의 ‘제3차 대각성부흥운동’으로 불리는 1857년의

---

46) 홍 철, “20세기 미국근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고찰-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13집 (2007), p. 292.

47) Jeffrey Khoo, *Kept Pure in All Ages: Recapturing the Authorized Version and the Doctrine of Providential Preservation*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2001), p. 22. ‘영감’(靈感, inspiration)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3:16에서 사용된 헬라어 ‘떼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다. 축자영감(Verbal Inspiration)은 성경의 모든 낱말들이, 완전영감(Plenary Inspiration)은 전체로서의 성경이 영감되었음을 강조한다.

48) 이진구,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형성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근대성 수용양태를 중심으로,” pp. 117-119.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기도회 부흥(Prayer Meeting Revival)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부흥은 1857년 뉴욕 시의 풀턴가 화란 개혁교회(Fulton Street Dutch Reformed Church)의 평신도 순회사역자인 랜피어(Jeremiah C. Lanphier)에 의해 시작된 정오 기도회가 시발점이었다. 부흥은 대도시들로 급격히 확산되어 2년 동안 거의 1백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다.<sup>49)</sup>

이때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부흥운동은 북아일랜드로 전파되어 북아일랜드 대각성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전파되는 상호과급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계기는 북아일랜드의 런던 데리(Londonderry) 총회가 1858년 깁슨(William Gipson) 목사와 맥클루(William McClure) 목사를 파송하여 미국의 대각성부흥운동을 살펴보고 오도록 한 것이다. 이에 아일랜드에서도 대각성부흥이 일어나서 1859년 3월 14일에 아호길(Ahoghill)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다.<sup>50)</sup> 여기에서 아일랜드의 대각성부흥을 주도하고 그 추동력을 미국으로 가져간 니드햄(George C. Needham)이 큰 감동을 받았다. 1861년에 니드햄은 매주 성경연구 집회를 개설하였고 이후 아일랜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회심자들을 모아 매년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Believers’ Meetings)을 결성하는 데까지 운동을 발전시켰다.<sup>51)</sup> 니드햄은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Chalse H. Spurgeon)에게도 영향을 받았는데, 1868년에 그는 스펄전의 소개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

---

49)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15.

50) Ian R. K. Paisley, *The 59 Revival: An Authentic History of the Great Ulster Awakening of 1859* (Belfast: Martyrs’ Memorial Free Presbyterian Church, 1958), p. 13.

51) George C. Needham, *The Spiritual Life*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5), p. 18.

## 2. 근본주의의 형성

아 그는 잉글리스(James Inglis)와 함께 미국의 ‘신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이 집회가 발전하여 나중에는 ‘나이아가라 사경회’(Niagara Bible Conference)로 불리게 된다. 1869년 이 모임이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는데, 브룩스(James Hall Brookes)가 합류하게 되었다. 브룩스는 그 모임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다.<sup>52)</sup>

1875년 여름에 브룩스의 인도로 성경 연구를 위한 비공식적인 ‘신자들의 모임’이 열렸다. 1878년의 집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였는데, 브룩스의 지도하에 14개의 조항으로 된 「나이아가라 신조」(Niagara Creed)를 작성하였다. 그 중 근본주의와 관련된 신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다 ... 그리고 성령의 신적 영감은 정도에 있어서 다름이 없으며, 역사적, 시적, 교리적, 그리고 예언적인 문서들의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고 완전하며, 낱말이 원본에서 발견되는 경우 가장 작은 단어까지 그리고 낱말의 어형변화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믿는다. (6)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9) 우리는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교회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성령에 의하여 연합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것임을 믿는다.<sup>53)</sup>

이 신조의 각 조항에는 참고 성경구절이 첨부되어 있어서 신조의 근거가 성경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1883년에 사경회는 처음으로 온 타리오 주 나이아가라 호숫가에서 모였는데, 여기에서 1884년을 제외하고 1897년 말까지 해마다 모임을 가졌다.<sup>54)</sup> 나이아가라 사경회

---

52) Beale, *In Pursuit of Purity*, pp. 18-19.

53) *Ibid.*, pp. 375-379.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의 내용들은 성령, 재림, 천년왕국, 복음,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교회, 구약의 초자연성,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 예언의 성취 등으로 다양했다.<sup>55)</sup> 「나이야가라 신조」와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나아가라 사경회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근본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나아가라 사경회는 어떤 특정 교파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하였다는 점이다. 강사(講師)들 뿐만 아니라 회중들 역시 장로교인, 침례교인, 회중교인, 감독교인, 감리교인, 형제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sup>56)</sup> 이는 모든 교파들 가운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세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던 현대주의에 대한 우려로 그 힘을 사경회에 결집한 것이었다.

미국장로교회 내에서도 현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반동이 있었다. 뉴욕 출신의 찰스 브릭스(Charles Augustus Briggs, 1841-1913)는 성경학자이자 장로교의 목사였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1876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교수가 되었다. 1880년대에 브릭스는 성경비평 체계를 대변하고 프린스톤 신학의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작들을 출판하였다. 교회 내에서는 브릭스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브릭스 자신이었다. 1891년 1월 20일에 브릭스는 유니온 신학교의 성경연구를 위한 석좌교수직에 취임할 때에 「성경의 권위」(The Authority of Holy Scripture)라

---

54) Ibid., pp. 23-26.

55) James H. Brooks, "Order of Exercises of Niagara Bible Conference, July 12-18, 1984." *The Truth* 20 (1894), p. 512.

56) James H. Brookes, "Niagara Conference," *The Truth*, 15 (1889), pp. 433-34.

## 2. 근본주의의 형성

는 제목으로 취임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를 미국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이단 재판들 중의 하나로 몰아갔다.<sup>57)</sup> 브릭스는 그의 연설에서 성경연구에 방해가 되는 여섯 가지 “장벽들”을 나열하였다. 이것들은 그가 성경우상숭배라고 불렀던 미신, 축자영감, 성경의 신빙성, 무오성, 기적들, 그리고 예언이었다. 한 시간 사십오분 동안 브릭스는 축자영감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거나, 성경의 진정성과 무오성을 조롱하였고, 계시된 기적들과 구약성경의 윤리를 비웃었으며, 원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부인하였으며, “죽음 이후의 점진적인 성화”를 옹호하였다.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은 브릭스를 이단으로 고소하였다. 1891년 총회는 브릭스의 교수직을 금지시켰으며 1892년 총회는 특별히 성경의 무오의 교리를 천명하였다.<sup>58)</sup> 1893년 총회는 브릭스의 노회가 브릭스의 이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단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그의 목사직을 정직시켰다.

한편 이 논쟁은 유니온 신학교와 장로교회의 결별을 초래하였다. 유니온 신학교의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브릭스가 유니온 신학교에 계속 남아있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었다. 장로교회로의 복권을 희망하며 몇 년을 기다렸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1898년 브릭스는 감독교회의 사제가 되었다.<sup>59)</sup> 현대주의자들은 브릭스를 옹호했지만, 근본주의자들은 브릭스를 장로교회의 역사적 전통에서 일탈한 최초의 미국장로교회의 신학자로 평가했다.

---

57) *Dictionary of the Presbyterian & Reformed Tradition in America*, ed. D. G. Hart and Mark A. Noll (InterVarsity Press, 1999), s.v. “Briggs, Charles Augustus,”

58) Beale, *In Pursuit of Purity*, pp. 145-146.

59) *Dictionary of the Presbyterian & Reformed Tradition in America*, s.v. “Briggs, Charles Augustus.”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유니온 신학교는 1905년에 이르러서는 학교에 부임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교리에 동의하며 문서에 서약하는 절차를 폐지했으며, 1910년 무렵에는 다른 교단에 속한 교수들을 영입함으로써 모든 교단에 개방된 신학교가 되었다. 유니온 신학교는 더 이상 장로교에 얽매이지 않게 됨으로써 목회자 양성보다는 현대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변모되었다.<sup>60)</sup>

브릭스의 재판을 통하여 교회 내에 세 종류의 분파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분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브릭스에게 동조하는 자들로, 둘째 분파는 브릭스에게 적대적이어서 재판에서 브릭스가 패배하기 바라는 자들로, 셋째 분파는 브릭스에게 동조하지는 않지만 장로교회가 브릭스를 용납할 만큼 충분히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포용적 교회주의”(Broad Churchism)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sup>61)</sup> 후에 근본주의 논쟁이 진행되었을 때 브릭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은 현대주의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브릭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근본주의 성향을 보였다. ‘포용주의자들’은 교리적으로는 근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현대주의자들을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포용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분란을 조장한다고 여겨 현대주의자들과 공조하여 근본주의자들을 미국장로교에서 축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브릭스 소송사건 외에도 두 건의 이단소송이 있었다. 1891년 3월에 레인 신학교의 헨리 스미스(Henry Preserved Smith, 1847-1927)가 신시내티의 목회자 연합회에서 연설하였는데, 그는 성경의 축자영감을 부인하였다. 1892년 12월 총회의 포틀랜드 선언이 있는 직후에 신시내티 노회는 스미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

60) 홍치모, 『영미장로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pp. 211-223.

61) Lefferts A.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54), p. 59.

## 2. 근본주의의 형성

그의 목사직을 정직시켰다. 다른 소송은 맥기퍼드(Arthur Cushman McGiffert, 1861-1933)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1893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로 취임하였다. 1897년에 그의 책 『사도시대의 기독교 역사』(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Apostolic Church Age)가 출판되었다. 출판 다음해에 피츠버그 노회는 그 책이 성경의 축자영감, 무오성, 진정성, 그리고 권위를 공격함으로써 신약을 불경하게 취급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맥기퍼트는 장로교 목사직에서 물러났다.<sup>62)</sup>

1892년의 포틀랜드 선언<sup>63)</sup>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1910년의 장로교 총회는 5개조의 교리적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16년과 1923년에 이 다섯 근본교리들을 재확인하였다.<sup>64)</sup> 1910년의 총회는 세 명의 목사후보생들을 인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 노회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였다. 고소자들은 목사후보생들이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기를 거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피고측에서는 문제의 세 목사후보생들이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교리들에 대한 것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 확인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리들도 언급되었지만, 특별히 이 교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고소장에 명기된 세 목사후보생들이 실제로 이 교리들을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의문시하였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따

---

62) Beale, *In Pursuit of Purity*, pp. 147-149.

63) 1892년에 총회는 ‘포틀랜드 선언’(Portland Deliverance)으로 알려진 공식적인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는 모든 목사 후보생들은 반드시 교회의 역사적 입장인 성경의 원본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만일 총회의 목사들 중 누구라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의 목사안수 때에 한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고발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64) *Ibid.*, p. 149.

## II. 20세기 초까지 미국장로교회의 상황과 근본주의의 형성, 1850-1921

라서 총회는 그 고소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였다.<sup>65)</sup>

이러한 일을 계기로 1910년의 총회는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의 사실성에 관한 5개조의 교리적 선언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이 신앙에 관한 다섯 조항들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essential and necessary) 것”으로 선언하였다. 그 후에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을 이 간략한 범위로 축소하려는 위협을 피하고자 “다른 교리들도 똑같이 동등하다”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총회는 산하의 노회들에게 “신앙고백의 모든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들과 일치하는 견해를 선언하지 않는 한,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직무를 위하여 어떤 목사후보생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sup>66)</sup>

1910년 장로교 총회는 현대주의와의 논쟁을 통해 근본주의의 교리적인 강조점들을 구체화하였다. 이 당시의 근본주의의 교리적 강조점은 「근본주의 5개 신조」(Five Points of Fundamentalism)로 요약되었다. 「근본주의 5개 신조」는 5개 조항의 공식적인 진술이나 신조의 형태로 진술되지는 않았다.<sup>67)</sup> 근본주의 5개 신조에서 그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경의 무오성,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3)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4) 그리스도 부활, 그리고 (5) 기적들의 사실성.<sup>68)</sup>

여기서 ‘근본주의’라는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본주의

---

65)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 98.

66) *Ibid.*, p. 99.

67) Mark Ellingsen, *The Evangelical Movement: Growth, Impact, Controversy, Dialog*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pp. 49-53.

68)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p. 97-99.

## 2. 근본주의의 형성

운동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근본’(fundamental)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발간된 12권의 책으로 구성된 『근본들』(The Fundamentals)에서 유래하였다. 이 책들은 90여 편의 논문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평신도의 수준에 맞는 것이었다. 논문들의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근본들』의 초점이 성경에 관한 정통적인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몇 논문들은 성경의 영감( inspiration)에 관한 교리를 다루었다. 1909년 8월에 덕슨(Amzi C. Dixon)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부유한 석유사업가였던 레이먼 스투워드(Lyman Stewart)와 밀튼 스투워드(Milton Stewart) 형제는 『근본들』을 출간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덕슨이 편집하였고, 각 권이 30만부 이상 미국, 캐나다, 영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 목사들, Y.M.C.A.의 담당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sup>69)</sup>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라는 용어는 1920년 7월 1일에 발행된 침례교 기관지인 ‘왓치맨 익제미너’(Watchman-Examiner)의 편집인이었던 커티스 로스(Cutis L. Laws)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현대주의와 포용주의적인 복음주의의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분리주의자들”을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sup>70)</sup>

---

69) Ibid., pp. 39-45.

70)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p. 485.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 1. 근본주의 논쟁

### (1) 교리논쟁

1920년 이전에는 표면적으로 근본주의가 현대주의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대주의도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1920년대 초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충돌은 근본주의자들이 아닌 현대주의자였던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의 설교로부터 격발되었다. 이 시기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현대주의자는 포스딕이었다.<sup>71)</sup>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현대주의자로 언급하였다. 그는 성경에 대한 비평주의를 받아들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sup>72)</sup> 1922년 5월 21일 주일 아침에 포스딕은 뉴욕시의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의 설교단에 올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Shall the Fundamentalists Win?)라는 제목의 설교를 회중들에게 하였다.<sup>73)</sup>

---

71) Leander S. Keyser, *The Conflict of Fundamentalism and Modernism* (Burlington: The Lutheran Literary Board, 1926), p. 14.

72) Herry Emerson Fosdick, *Answers to Real Problem: Harry Emerson Fosdick Speaks To Our Time Selected Sermons of Harry Emerson Fosdick*, ed. Mark E. Yurs (Eugene: Wipe & Stock, 2008). 이 설교집은 포스딕의 현대주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73)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 Moder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 근본주의 논쟁

포스딕은 그의 설교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 현대주의자들에 대한 관용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근본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는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는 편협하고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sup>74)</sup> 포스딕은 계속해서 당시의 교회들 내에 교리적 불일치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사소한 차이들 때문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서 그는 이 편협과 불관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용의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요청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 기독교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그리고 세상이 큰 어려움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기독교회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치는 감각”<sup>75)</sup>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포스딕이 근본주의자들에게 관용을 호소한 것과 스스로 관용을 실천한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sup>76)</sup> 포스딕은 같은 해에 『기독교와 진보』

---

1991), p. 9.

74) Herry Emerson Fosdick, “Shall the Fundamentalists Win?” *Christian Work*, 102 (June 10, 1922), pp. 716-722.

75) Ibid.

76) Timothy Tow, *John Sung My Teacher* (Singapore: Christian Life Publishers, 1985), pp. 69-82. 1926년 3월 화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존 성(John Sung, 宋尚節)은 그 해 가을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후에 존 성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사신신학(死神神學, God-is-dead Theology)을 가르쳤던 그 신학교(seminary)를 공동묘지(cemetery)로 표현하였다. 그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포스딕이었는데 존 성은 포스딕 교수를 가장 좋아하였다. 그러나 1927년 2월 10일 극적인 회심(回心)의 체험을 한 존 성은 포스딕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포스딕에게로 달려가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내가 믿음을 잃도록 만들었고, 다른 젊은이들이 당신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Christianity and Progress)에서 당시 교회의 상황을 독특하게 진단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대의 개신교에는 교회에 대한 각기 다른 두 개념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교회에 관한 배타적인(exclusive) 개념이었고, 또 다른 개념은 교회에 관한 포용적인(inclusive) 개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에 관한 배타적인 개념은 근본주의적 입장을, 그리고 포용적인 개념은 현대주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sup>77)</sup> 포스딕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미국장로교회 내에 포용주의자들과 배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미국장로교회 내에는 교단 내에 더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를 원하는 포용주의자들의 세력이 수적인 면에서 배타적인 개념을 고수하고 있던 보다 엄격한 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을 넘어서고 있었다. 포용주의자들은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했던 온건주의자들이었다.<sup>78)</sup>

포스딕이 편협한 보수주의자들과 불렀던 근본주의자들 역시 포스딕의 공격에 침묵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필라델피아에 있던 아치 스트리트 장로교회(Arch Street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였던 클라렌스 맥카트니(Clarence E. Macartney)가 배타적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그 역시 당시에 포스딕만큼이나 명성있는 설교가로 평가받고 있었다.<sup>79)</sup> 맥카트니는 포스딕의 설교에 대한

---

렀습니다.”라고 말했다. 포스딕은 존 성에게 “성형제, 진정하게.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자네는 휴식이 필요한 것 같네. 우리가 자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있는 지 한 주 뒤에 포스딕은 존 성을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77) Text in ec. Eldred C. VanderLann, *Fundamentalism versus Modernism* (New York: The H. W. Wilson Company, 1925), p. 396.

78)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 384.

79)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pp. 171-173.

## 1. 근본주의 논쟁

응답으로 쓴 글인 「불신앙이 승리할 것인가?: 포스딕 박사에게 답함」(Shall Unbelief Win? An Answer to Dr. Fosdick)을 통하여 근본주의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는 그 글에서 포스딕이 언급한 동정녀 탄생, 성경의 영감, 재림, 속죄에 관한 교리들을 현대주의와는 다른 근본주의 입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동시에 그는 현대주의에 대하여 신앙을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말하였다. 맥카트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매우 분명하고 두려움 없이 선포함으로써 온 세상이 기독교인 것과 기독교가 아닌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신앙을 위해 투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sup>80)</sup>

맥카트니가 제시한 방법, 즉 기독교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책으로 저술하여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와 현대주의적인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 사람이 바로 메이첸(J. Gresham Machen)이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신약학 교수였던 메이첸은 미국장로교회 내에서 근본주의 진영을 이끄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sup>81)</sup> 당시 현대주의 비평가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의 순전하고 단순한 복음을 왜곡시켰으며, 당시의 유대주의와 이교도의 자료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메이첸은 포스딕의 설교가 있기 전인 1921년에 출간한 『바울종교의 기원』을 통하여 이미 현대주의 비평가들의 이론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그는 바울종교는 유대주의나 이교주의로부터 유래한 사상들의 합성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

80) Clarence E. Macartney, “Shall Unbelief Win? An Answer to Dr. Fosdick,” 2 parts, *The Presbyterian*, July 13 & 20, 1922.

81) George M. Marsden, *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p. 58.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역사적 예수 위에 세워졌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예수는 현대에서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예수가 아니라 전체 신약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유래한 바로 그 예수라고 보았다.<sup>82)</sup>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에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메이첸의 저술은 1923년에 출간된 『기독교와 자유주의』였다. 메이첸은 기독교와 현대주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였는데, 그는 현대주의를 전혀 기독교가 아니며 기독교와 전혀 다른 어떤 종교라고 규정하였다. 메이첸은 현대주의의 주된 목적이 과학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며 기독교의 모든 특징을 실제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았다. 메이첸은 그의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기독교와 현대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현대주의에 대한 메이첸의 견해는 당시의 근본주의자들의 생각을 대변했다.<sup>83)</sup> 그 후에도 그는 저술을 통해서 현대주의와의 논쟁을

---

82) J. Gresham Machen,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Repri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25), p. 317. “바울종교는 유대주의나 이교주의로부터 유래한 사상들의 합성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것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예수는 현대에 재구성된 예수가 아니라 전체 신약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유래한 예수이다.” 이 책은 그의 논문 「예수와 바울」 [“Jesus and Paul,” in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ed. the Members of the Faculty of th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12), pp. 545-578]이 확장된 형태이다.

83)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23), pp. 6-7. “자유주의 신학자가 기독교 교리를 하나씩 대적에게 양보한 후에 남겨진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지금까지 오랫동안 존재해 온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 현대 자유주의는 그것이 (1)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에서 (2) 비과학적이라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 우리는 현대의 자유주의자가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유주의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종교에 속한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자유주의자가 기독교를 현대의 과학과

## 1. 근본주의 논쟁

계속하였는데, 1925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하였다.<sup>84)</sup> 이 책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신앙과 지식을 분리시켰던 당시 현대주의와 투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변호하기 위하여 1930년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출간하였다.<sup>85)</sup>

맥카트니와 필라델피아 노회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포스틱을 교회의 치리(治理)를 통하여 처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포스틱이 본래 장로교의 목사가 아닌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뉴욕 제일장로교회에서 시무하다 이 일로 인해 직무에서 사임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23년에 미국 장로교의 총회에서는 현대주의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1910년의 5개조의 교리적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적 표준들로부터 온 본질적인” 교리 들임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오류로부터 지키심으로써 확실하게 그들을 영감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셨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3.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고통을 당

---

화해시키려는 시도가 참으로 기독교의 모든 분명한 점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 있는 것은 기독교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에 있었던 종교와 동일한 형태의 종교적인 열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84) J. Gresham Machen, *What is Faith?* (Reprint,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85) J. Gresham Machen, *The Virgin Birth of Chris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30).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하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 중재를 하시면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5.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 있는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셨다.<sup>86)</sup>

그러나 포스딕 사건의 여파는 총회의 선언으로 해결될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포스딕의 사건이 있은 후 총회의 조치에 반발하여 현대주의에 동조하였던 사람들은 선언서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는데, 그것이 「어번 선언서」(Auburn Affirmation)였다.<sup>87)</sup> 「어번 선언서」는 1924년 1월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때에 미국장로교회 목사들 150명이 그 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1924년 5월 말에는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하여 1,294명이 서명하였고, 오직 한 명만이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나중에 요청하였다.<sup>88)</sup> 이 선언서는 배타적인 교회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신학적 자세는 포용주의였다.<sup>89)</sup> 그리고 미국장로교회 내에서의 일치와 자유를 강조하였다.<sup>90)</sup> 이 문건을 제출한 목사들은 이 선언서

---

86) Eldred C. VanderLann, *Fundamentalism versus Modernism*, p. 21.

87) 홍 철, 『미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pp. 84-85.

88) Paul M. Elliott, *Christianity and Neo-Liberalism: The Spiritual Crisis in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and Beyond* (Unicoi: The Trinity Foundation, 2005), p. 369. 이곳에 실린 “어번 선언서”의 원문은 1924년 5월 5일에 뉴욕 어번에서 제이콥 출판사에 의해 발행된 인쇄물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선언서는 크게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본문에 해당하는 여섯 항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출자들에 관한 짧은 주석이 있다.

89)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서울: 아멘서적, 1992), p. 123.

90) Elliott, *Christianity and Neo-Liberalism*, p. 369. 이 선언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선언서: 미국장로교회의 일치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이 선언서는 교회의 목사들과 구성원들의 고려를 위해 제출되

## 1. 근본주의 논쟁

의 서론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하였다. 이들은 1923년의 총회와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의 자유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총회장의 행위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받아들였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자신들은 미국장로교회의 충성스러운 목사들이며, 자신들의 교회의 신앙의 지속, 교회의 일치의 보존,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과 구성원들의 자유의 보호를 위해 선언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이 선언서가 1923년에 장로교의 총회에서 재선언된 5개조의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선언서의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1923년의 총회가 행한 특정 행위는 이 5개조의 교리가 분명했다.<sup>91)</sup> 그 뿐만 아니라 이 선언서는 그들이 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리들을 전체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sup>92)</sup> 이 선언서는 첫 번째 항목에서 “성경은 그 기록자들의 오류로부터 지켜졌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신앙고백도 이러한 단언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언이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또는 어떤 위대한 개혁주의 신앙고백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였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어떤 교리를 ‘본질적인 교리’라고 한 총회의 선언은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교회의 헌법을 수정하려는 시도이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총회의 권위를 인

---

다.”

91) Carl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교회의 죽음』, 이태희 역 (경북 포항: 태백출판사, 1981), pp. 167-68.

92)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364.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총회는 관계된 양자의 소견을 듣지 않고 그 안건을 처리하였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뉴욕 제일장로교회의 건, 즉 포스틱 사건이 공평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sup>93)</sup> 그러나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네 번째 항목이었다. 이 선언서는 네 번째 항목에서 5개조의 교리적 선언을 “교리”(doctrine)가 아닌 “이론”(theory)으로 기술하고 있다.<sup>94)</sup> 교리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인 반면, 이론은 고정된 진리의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그 이론은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술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일치된 증거를 절망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내의

---

93) Elliott, *Christianity and Neo-Liberalism*, pp. 369-72.

94) Ibid, pp. 374-75. 네 번째 항목의 주요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23년의 총회는 다섯 교리적 진술들에 대하여 그것들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교리적 표준들로부터 온 본질적인 교리’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헌법적 토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다섯 교리적 진술들을 또는 그것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안수를 위하여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평판을 위한 시금석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총회의 의견은 성경의 영감(靈感),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속죄(贖罪), 부활(復活)과 영속하는 삶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한 어떤 이론들에 교회를 맡기려는 시도이다. … 우리 중의 어떤 사람들은 1923년 총회의 선언에 담긴 특정한 이론들을 이 사실들과 교리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종교의 이러한 사실들과 교리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표준들에 의해 허락된 유일한 이론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과 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들을 수용하든지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고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며 교제를 나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다.”

## 1. 근본주의 논쟁

분열의 증거들을 애통해 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출자들에게 관한 짧은 주석으로 마무리하였다.<sup>95)</sup>

포스딕 사건과 1923년 총회의 선언을 놓고 본다면 자유와 관용을 호소하던 현대주의자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었다.<sup>96)</sup> 「어번 선언서」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것은 장로교 내에 현대주의에 동조하는 세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용을 호소하였던 현대주의자들은 포용주의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였다.<sup>97)</sup> 현대주의 논쟁이 시작될 무렵에 현대주의자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근본주의자들은 현대주의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장로교 내의 모든 목사 and 구성원들이 현대주의 또는 근본주의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던 보수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단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학적 성향에 있어서 중도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근본주의와 같은 노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개념에서 이 보수주의 세력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한 세력은 현대주의에 대하여 포용주의를 표명하였고, 또 다른 한 세력은 배타주의를 표명하였다. 포용주의자들은 관용을 요청하던 현대주의자들에 대해 관용적이었고 교리보다는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반면 배타주의자들은 교리와 신조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 현대주의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근본주의 논쟁이 깊어질수록 보수주의 세력 내에서 포용주의와 배타주의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한 충돌의

---

95) Ibid., pp. 374-75.

96)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339.

97) Ibid, p. 351.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였다.<sup>98)</sup>

프린스턴 신학교의 역사는 1812년 설립 때부터 신학교가 재편성된 1929년까지와 그 이후의 역사로 구분된다. 1929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가 고수하였던 신학을 흔히 ‘구 프린스턴 신학’(Old Princeton Theology)이라고 한다. 구 프린스턴의 신학은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핫지(Charles Hodge),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그리고 메이첸(J. Gresham Machen)을 중심으로 구학과(Old School)의 유산과 더불어 칼뱅주의적 전통의 개혁신앙을 고수하며 가르쳐왔다.<sup>99)</sup> 그러나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사회회의 재편성과 더불어 그동안 고수하였던 신학적 전통을 포기하고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따라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였다.<sup>100)</sup>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때 프린스턴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앞장서서 고수했던 사람은 메이첸이었다. 메이첸의 성향은 근본주의적이었으며, 프린스턴의 신학을 계승하였고, 기독교의 역사성과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강조하였으며, 성경의 무오성을 옹호하고, 세대주의를 비판하였다.<sup>101)</sup> 1923년 메이첸이 프린스턴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장로교 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현대주의에 대한 포용주의자들과 배타주의자들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이 충돌이 보다 분명한 형태를 띠고 나타

---

98)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p. 117-24.

99) 김길성,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제236호 (1993), p. 22.

100) 김길성, “프린스턴 신학교의 재편성과 종교다원주의의 수용,” 『신학지남』, 제242호 (1995), pp. 61-62.

101) 홍철, “메이첸의 생애와 사상,” 『역사신학논총』, 제9집 (2005), pp. 165-75.

## 1. 근본주의 논쟁

난 것은 1924년 미국장로교 총회의 총회장 선거에서였다.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인 어드만(Charles R. Erdman)은 1924년 총회 전날 밤에 어떤 교리적 논쟁으로 인한 방해 없이 장로교회의 건설적인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였다. 메이첸에게 이것은 교리적으로 신앙무차별론을 뜻하는 것이었다. 메이첸은 어드만이 포용주의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원칙에 따라 근본주의적 노선을 표명하였던 맥카트니를 지지하였다. 이 선거에서 맥카트니가 총회장에 당선되고 어드만은 탈락하였다. 어드만은 총회 후에 맥카트니가 총회장이 된 것은 정치적 계략 때문이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102)</sup> 사실 메이첸과 어드만의 신학적 차이가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워필드에 가서 신학을 배웠고 프린스턴의 신학적 전통에 공감하고 있었다. 어드만은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신앙면에서 언제나 근본주의자이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어드만은 자신의 부친과 함께 근본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들』(The Fundamentals)의 편집인이었다. 1915년에는 『장로교인』이라는 대표적인 보수주의 잡지에 150명의 목사들이 현대주의 물결에 대항하여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선언에 서명을 했을 때 어드만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교회의 안팎에서 보수주의 지도자로서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의 성경관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었으며, 종말관은 ‘전천년주의’(premillennialism)를 고수함으로써 대다수의 근본주의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에 메이첸은 종말관에 있어서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주의자들의 종말관과는 거리가

---

102)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491-93.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있었다.<sup>103)</sup> 종말관만을 본다면 어드만의 입장이 오히려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 더 가까웠다.

어드만은 사회복음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는 사회복음주의가 성육신,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믿음에 의한 칭의,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며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보았다.<sup>104)</sup> 반면에 메이첸은 ‘근본주의자’라는 용어를 싫어하였으며, 자신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은 모두 보수주의자들이었지만 전체가 근본주의자들은 아니었다.<sup>10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드만은 현대주의자들과 공조하였고, 메이첸은 근본주의자들 편에서 투쟁하였다. 어드만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리적인 체계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공동전선을 폈으며, 많은 경우 의도적으로 교리적인 차이를 무시하였다. 메이첸은 그러한 어드만의 태도에 동의

---

103) Timothy Tow and Jeffrey Khoo, *Theology for Every Christian: A Systematic Theology in the Reformed and Premillennial Tradition of J. Oliver Buswell*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7), pp. 427-35. 기독교의 종말관의 중심에는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의 시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 있는 후에 재림할 것이라는 견해이며, 무천년주의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대로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104) Charles R. Erdman, “The Church and Socialism” in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volume IV edited by R. A. Torrey, A. C. Dixon and Oth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p. 101.

105) 김기홍, “20세기초 미국 장로교 근본주의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성경과 신학』, (1984) pp. 93-101.

## 1. 근본주의 논쟁

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 교리가 단순히 복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복음과 동일한 것임을 강조했다.<sup>106)</sup>

어드만은 1925년 총회에서 현대주의자들과 관용적 보수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총회는 15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불안의 원인들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sup>107)</sup> 1925년 총회에서 현대주의자들과 포용적 보수주의자들 연합은 배타적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을 모두 ‘보수적 극우파’로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한 명의 현대주의자와 네 명의 극우파를 제외하면 모두 중도파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총회가 포용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다. 메이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925년 12월 2일에 교단의 상황에 관한 자신의 분석을 제출하였다. 그의 주장은 교단 내의 불안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현대주의이며, 이 현대주의는 장로교회의 헌법과 기독교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8)</sup> 1926년 총회에서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메이첸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1926년의 총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더욱 더 포용주의 쪽으로 기울어졌다.<sup>109)</sup> 당시 프린스톤 신학교의 운영이사들과 교수단 내에서는 스티븐슨(J. Ross Stevenson)이 교장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의 프린스톤 신학교는 이원체제의 이사회를 가지고 있었다. 운영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신학교의 교육과 학사문제를 다루었

---

106)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376.

107)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pp. 129-130.

108) J. Gresham Machen, “Statement to the Special Commission of 1925”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291-98.

109)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382.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고,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신학교의 재정문제만을 담당하였다. 교수단(Faculty)과 운영이사회의 다수는 배타적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재단이사회의 다수는 포용적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총회의 상황은 스티븐슨과 어드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운영이사들 중 소수파와 재단이사들은 총회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특별히 조사할 위원회를 임명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총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위원회를 임명하였다.<sup>110)</sup>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는 192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학교 내의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였다. 메이첸도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소책자 형태로 진술하였다.<sup>111)</sup> 그리고 위원회는 1927년 총회에서 “프린스턴이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들의 뿌리와 원인은 두 이사회에 의한 관리로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것과 프린스턴 신학교를 확실하게 총회의 통제 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sup>112)</sup>

1927년 12월에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위하여 “프린스턴 신학교에 대한 공격: 페어플레이를 위한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로 된 성명서를 출판하였다.<sup>113)</sup> 메이첸은 자비를 들여 2만 부 이상을 배포하였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수결의

---

110) Ibid., p. 383.

111) J. Gresham Machen, “Statement to the Committee to Investigate Princeton”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299-309.

112)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p. 142-144.

113) J. Gresham Machen, “The Attack upon Princeton Seminary: A Plea for Fair Play”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310-331.

## 1. 근본주의 논쟁

원칙을 무시하는 소수파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고국에서든 선교지에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명적인 원수인 현대주의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sup>114)</sup>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두 이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그러한 조치가 신학교의 통제권을 보수주의자들에서 중도파와 현대주의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알았다. 그러나 메이첸의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sup>115)</sup> 1929년 총회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회를 단일 이사회로 개편하였다. 새로 구성된 단일 이사회는 18명의 목사와 15명의 장로로 구성되었다. 33명 중 11명은 운영이사회가 선출하였고, 11명은 재단이사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교회기관에서 추천하였다.<sup>116)</sup> 이것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회가 포용주의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사임하였다. 메이첸 뿐만 아니라 교수단의 일부도 함께 사임을 했는데, 윌슨(Robert Dick Wilson), 앨리스(Oswald T. Allis), 그리고 반 틸(Cornelius Van Til)이 바로 그들이다. 메이첸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수들 중에는 개인적인 이유들로 계속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잔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사임한 후, 미국장로교회는 더 이상 구 프린스턴의 정체성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제 옛 프린스턴은 사라지고 새 프린스턴이 시작되었다.<sup>117)</sup>

---

114)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431-433.

115) Stephen J. Nicholas ed., *J. Gresham Machen's The Gospel in the Modern World and Other Short Writings*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5), p. 6.

116) 홍치모, 『J. Gresham Machen 교수의 생애와 사상(1)』, p. 100.

117) David B. Calhoun, *Princeton Seminary: The Majestic Testimony*

## (2) 사회문제와 해외선교

1860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산업 규모는 8배 성장하였으며, 국민총생산량은 30배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시골과 소도시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sup>118)</sup> 1920년에 미국인의 51.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미국인의 도시거주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개신교가 문화를 지배하고 종교생활의 내용을 제공하였던 소도시나 시골 마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도시의 환경은 주민들을 상업과 더 밀착시켰고, 고등교육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적인 집단들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는 미국 종교의 복음주의적 성격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작용을 했다.<sup>119)</sup>

당시 교회에는 도시의 소비문화에 발맞추어 물질의 풍요와 진보를 찬양하는 ‘성공의 복음’이 등장하였다. 이 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부자가 되는 일은 기독교적이며 경건한 의무가 되었다. 교회 내에서 나타난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시켰다.<sup>120)</sup> 당시 미국 각지의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큰 교회건물들을 건축하였다. 이러한 유행은 교파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1921년에 교회 건축에 소비된 돈은 6천만 달러였으며, 1926년에는 2억8천400만 달러로 5년 사이 거의 5배로 늘었다. 1916년에 교회 건축물들의 시가 총액은 16억7660만 달러 정도였는데, 1926년에는

---

1869-1929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6), pp. 393-395.

118)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 304.

119) *Ibid.*, p. 364.

120) 류대영, 『미국종교사』, pp. 392-394.

## 1. 근본주의 논쟁

그 두 배가 되었다.<sup>121)</sup>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 빈민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많은 종교인들이 노동자 및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복음’(Social Gospel)의 대두였다. 사회복음은 어떤 일사 분란한 조직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였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개인의 선의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기독교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들었다.<sup>122)</sup> 이 사회복음운동은 대략 1880년부터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 사이에 계속 그 세력을 키워갔다. 사회복음의 목적은 도시화 이전의 미국의 개신교 전통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변화된 요구에 적응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회복음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현대주의적인 신학 사조들과 연합하였다.<sup>123)</sup>

19세기 중반에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근본주의자들은 사회복음은 물론이고 사회활동 자체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영향력 있던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사회복음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어려운 도시 사람들을 도우

---

121) William Warren Sweet, 『미국종교사』, 김기달 역 (영남신학교출판부, 1978), pp. 517-518.

122) Ibid., pp. 397-398.

123)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 305.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려는 노력들을 현대주의 신학에 동조하는, 기독교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했다.<sup>124)</sup> 이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가 점차 사회와의 접촉점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근본주의는 사회와 격리되었다.

미국교회들은 미국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변화에도 적응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는 미국교회의 해외 선교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별히 1929년의 대공황은 교인들의 수입 감소를 유발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선교헌금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몇 년 동안 계속 악화되었는데, 1935년 교인들의 헌금액은 1930년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40년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되었다.<sup>125)</sup>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증가된 교회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비용과 건축에 사용된 비용의 증가로 인해 미국교회 자체 내부의 재정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선교사를 배척하였던 흐름도 선교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sup>126)</sup>

특별히 이 시기에 미국장로교 내에서는 현대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선교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사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지만 장로교단에서 떠나지 않고 교단 내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선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메이첸은 1926년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강연에서 “위기의 시기에 논쟁을 한탄하며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들의 설교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다”<sup>127)</sup>

---

124) Alister E.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pp. 397-398.

125) Latourette. *A History Christianity*, pp. 615-616.

126)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pp. 520-521.

## 1. 근본주의 논쟁

라고 진술하였다. 1932년 6월 17일 영국의 런던에서 행한 강연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학문성을 복음전도와 연관시키고 있다. 설교자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의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8)</sup> 메이첸은 유작으로 출판된 『기독교 인간관』에서 그가 당시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당시의 교회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배교해 있다고 보았다.<sup>129)</sup> 교회에 대한 메이첸의 생각은 교회에 의해 설립된 선교기관들에게로 연장되었다. 그는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교회와 관련된 선교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는 자유주의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하튼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같은 영역 내에서 동시에 선전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부 내에서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sup>130)</sup> 또한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후원금이 성경과 역사적 신조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 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점에 있어서 그 복음과 정반대인 종교적인 가르침의 형태를 선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up>131)</sup>

---

127) J. Gresham Machen,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228-236.

128) J. Gresham Machen, “Christian Scholarship and Evangelism”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135-142.

129) J. Gresham Machen, *The Christian View of Ma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9), pp. 13-14.

130)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p. 160.

131) *Ibid.*, pp. 170-171.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선교 문제에서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의 충돌은 1932년 말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1932년 말에 침례교도였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Jr.)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일곱 권으로 된 「선교에 관한 평신도들의 보고서」(Laymen's Report on Missions)가 비공식적으로 출간되었다. 위원장이었던 호킹(William Ernest Hocking)은 『선교의 재고: 백년 뒤의 평신도들의 질문』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현대주의적이고 포용주의적인 정신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다. 록펠러는 호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록펠러는 이미 포스틱을 위해 뉴욕에 리버사이드침례교회(Riverside Baptist Church)를 세우도록 재정지원을 한 적이 있었다.<sup>132)</sup> 이 책은 “현대선교가 우선 주위의 종교들을 알고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그 후에 그 종교들 안에 있는 유사한 요소들을 깨닫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기독교 중심의 일방적인 선교의 형태에서 벗어나 기독교가 선교 현장에서 현지의 다른 종교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었다.<sup>133)</sup>

이 책은 두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초래하였다. 현대주의자들은 이 책에 대하여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였던 펄 벅(Pearl Buck)이었다. 펄 벅은 이 일이 문제가 되어 후에 선교사 직위를 사임하였다. 근본주의자들은 이 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맥카트니의 경우에

---

132) William R. Hutchison, *Errand to the World: American Protestant Thought and Foreign Miss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148-158.

133) William Ernest Hocking,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p. 33.

## 1. 근본주의 논쟁

는 이 책이 “역사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평하였다.<sup>134)</sup> 메이첸도 『현대주의와 선교부』(Modernism and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현대주의의 선교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sup>135)</sup> 메이첸은 1933년 5월에 했던 라디오 강연에서 선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는 초대교회가 극단적으로 교리적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범 이상인 구세주로 선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초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종의 모범 또는 일종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震怒)와 무시무시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sup>136)</sup>

장로교의 총회가 현대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된 것은 물론이고 장로교의 선교부 역시 현대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근본주의자들에게 불리하였다. 장로교 선교부는 선교지에서의 화합 때문에 메이첸의 견해에 동조하였던 선교사 후보생들을 계속해서 배제하였다. 또한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된 일부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메이첸이 보기에 반(反)기독교적인 주장들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메이첸은 1933년에 장로교독립선교부를 설립하였다.<sup>137)</sup>

---

134)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524-627.

135) 김길성, “메이첸의 후기 신학과 사상,” 『신학지남』, 제264호 (2000) p. 202.

136) J. Gresham Machen, “The Christian View of Missions”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240-241.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이 시기에 미국 주류교단에서 벌어졌던 근본주의 논쟁에서 현대주의자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북부에 있는 주류 교단들의 경우 내부로부터 개혁을 단행한다 해도 현대주의가 교단 내부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 교단을 떠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sup>138)</sup> 그들은 교단으로부터 분리하여 근본주의 성향의 새로운 교단들을 설립하였다. 그 방법에 더하여,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고안하고 그 방법들을 통하여 대중에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계속 전파하였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부흥사경회’였다.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사람은 장로교인인 빌리(Billy)로 불렸던 윌리엄 선데이(William Ashley Sunday)였다. 메이첸의 진술에 따르면, 빌리 선데이의 부흥사경회는 두 달 정도 계속되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두 차례의 집회를 가졌으며, 주일은 세 차례의 집회를 가졌다. 빌리 선데이의 설교는 공격적이었고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매 집회마다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sup>139)</sup> 또 하나의 방식은 방송매체를 이용한 것이었다. 1930년과 1935년 사이에 라디오 보유수는 1,800만대를 넘어서 있었으며, 1938년 즈음에

---

137) D. Clair Davis, “Machen and Liberalism,” *Pressing Toward the Mark: Essays Commemorating Fifty Years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36-1986*, edited by Charles G. Dennison & Richard C. Gamble (Philadelphia: The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86), pp. 253-254.

138) McGrath,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pp. 631-634.

139)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222-223.

## 1. 근본주의 논쟁

는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흥거리가 되었다.<sup>140)</sup> 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근본주의자인 찰스 풀러(Charles E. Fuller)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1925년부터 방송설교를 시작했는데,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라디오를 근본주의자들만 이용하지는 않았다. 현대주의자였던 포스터도 방송설교를 했는데, 그의 청취자들은 주로 지식인들이었다.<sup>141)</sup>

근본주의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 이 시기에 있었다. 근본주의와 진화론의 논쟁은 1925년에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있었던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sup>142)</sup>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이 있을 무렵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주가 많았다. 특별히 1925년 봄 테네시 주에서 통과된 법은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런데 테네시 주의 고등학교 교사였던 존 스코프스(John T. Scopes)가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당했고, 1925년 6월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근본주의에 반대했던 클라렌스 대로우(Clarence Darrow)가 피고의 변호인이었으며, 근본주의의 대변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ian)이 기소를 담당했다. 이 재판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재판 과정은 미국 전역으로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결국 스코프스는 유죄평결을 받았고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가 진화론에 대해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이 재판을 계기로 근본주의는 점점 쇠퇴하게

---

140)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254.

141) Latourette. *A History Christianity*, p. 607.

142) 류대영, 『미국종교사』, p. 429. 이 재판의 정식명칭은 “The state of Tennessee v. John Thomas Scopes”이며 흔히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Scopes monkey trial)이라고 불린다.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되고 진화론은 더욱 그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신학에 있어서 현대주의가 주도권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로 근본주의는 배우지 못하고, 고집이 세며,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었다.<sup>143)</sup>

## 2.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미국장로교 내에 있었던 근본주의 논쟁의 결과는 서로 연결된 세 기관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메이첸을 중심으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33년에는 장로교독립선교부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에 정통장로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미국장로교 내의 근본주의 논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현대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 (1)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설립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WTS)는 “개혁신앙의 학문성과 전투적인 변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1929년 이전의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방침들과 전통들을 계승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다.<sup>144)</sup> 1929년 7월 8일에 예비모임이 있던 후 7월 18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모습에 구체화되었다. 7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였으며 메이첸이 개회연설을 하였다. 찰스 샬(Charles Schall)이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

143) 신종철, 『한국장로교회와 근본주의』, pp. 136-138.

144)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in Conflict”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 565.

## 2.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1929년 총회의 조치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동안 지켜왔던 교리적인 입장을 버리도록 강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이 새로운 학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충성할 것임을 강조했다.<sup>145)</sup> 그리고 윌슨 교수와 메이첸 교수와 앨리스 교수를 자문으로 하는 15인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7월 25일에 그 신학교의 조직위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를 학교의 이름으로 선택하였다.<sup>146)</sup> 1929년 9월 25일에 웨스트민스터 개교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메이첸은 그 자리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교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의 서두에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해야만 하는 일의 중심에 성경이 있으며, 이 성경에 대한 강조가 당시의 대부분의 신학교들과 확연히 다른 점임을 언급했다.<sup>147)</sup>

메이첸은 그 강연에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적인 전통이 어떠한지 보여주었다. 메이첸은 이 새로운 신학교가 칼뱅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할 것과 또한 자신이 목사안수를 받을 때에 한 서약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성할 것임을 선언하였다.<sup>148)</sup>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원래 추구하던 대의를 잃어버렸으며 그 대의를 계승한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이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선

---

145)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448.

146) Ibid.

147) J. Gresham Mache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ts Purpose and Plan”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187-188.

148) Ibid., p. 191.

언하였다.<sup>149)</sup>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들 중 하나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교단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학교로 존재하기로 한 것이었다.<sup>150)</sup>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독립성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유니온 신학교는 브릭스의 재판 당시 총회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된 신학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장로교의 목사들을 배출하고 있었다.<sup>151)</sup>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독립된 신학교였지만 장로교의 목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 (2)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설립

메이첸과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미국장로교 교단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로교선교부(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에서 현대주의자들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하였다. 장로교선교부가 현대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선교부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단의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의 신앙과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교단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선교부를 세웠다.<sup>152)</sup> 1933년 장로교 총회가 끝난 직후인 6월 27일에

---

149) Ibid., pp. 193-194, “프린스턴 신학교는 죽었지만, 프린스턴 신학교의 고귀한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전통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호함과 타협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는 가장 정직한 기초 위에서 구 프린스턴이 지켜왔던 것과 동일한 원리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50)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459.

151)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 188.

## 2.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독립선교부를 설립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공식모임이 있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 정관이 채택되어 장로교독립선교부(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s: IBPFM)가 설립되었으며, 메이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sup>153)</sup>

그런데 ‘장로교독립선교부’의 명칭 안에 있는 ‘독립’과 ‘장로교’라는 두 단어가 교단 내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거부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독립’은 교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장로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였다. 메이첸은 ‘장로교’라는 용어가 교단 내 옛 선교부의 신학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었다.<sup>154)</sup> 장로교독립선교부가 설립되자마자 이 선교부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sup>155)</sup> 사실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설립과 운영은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장로교회는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부와 독립선교부들을 항상 인정해오고 있었다. 또한 장로교인들이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부에 기부하지 않고 독립선교부에 기부하는 것은 장로교회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4년의 미국장로교 총회는 「명령서」(Mandate)를 발부하였다.<sup>156)</sup> 장로교독립선교부의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총회의

---

152) <http://www.ibpfm.org/purpose.php>.

153) 김길성, “메이첸의 후기 신학과 사상,” p. 204.

154) 김기홍,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pp. 154-155.

155)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 483.

156)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p. 189-190. 매킨타이어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이첸 박사는 교단 밖에서 장로교독립선교부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총회의 공식 서기였던 윌리엄 퓨(William Pugh) 박사는 … 메이첸 박사와 독립선교부의 회원들이 즉시 사임하고 공식적인 교단의 프로그램을 조건 없이 후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명령하는 소위 말하는 ‘명령서’를 발부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한 처사이며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항의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명령서의 명령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그 명령을 거부하였다.<sup>157)</sup> 현대주의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소수였을 때에는 자신들이 교회의 법을 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관용적 보수주의자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대파에 대한 관용을 허용하지 않았다.<sup>158)</sup>

### (3) 정통장로교회의 설립

1934년에 장로교독립선교부의 활동을 금지하는 미국장로교 총회의 명령서가 하달되었으나 해당자 모두가 이에 불복하자 총회의 서기는 노회의 서기들과 서신왕래를 시작했다. 메이첸이 소속되어 있던 뉴브런스윅 노회(Presbytery of New Brunswick)는 냉철하고 정확하게 총회의 요구를 이행하였다. 노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메이첸은 자신이 「총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이유」 네 가지를 발표하였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선전을 지지하는 것이다.
- B.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로 대체하는 것이다.
- C. 이것은 교회의 자선의 후원이 자의에 의한 기부의 문제가 아니라 별금으로 강제되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묵종(默從)함을 의미한다.<sup>159)</sup>

---

였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157) Carl McIntire, *McIntire Maxims*, edited by Timothy Tow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1999), p. 38.

158) 김길성, “메이첸의 후기 신학과 사상,” p. 208.

159) J. Gresham Machen, “Statement to the Presbytery of New Brunswick”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 2.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메이첸은 총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장로교회에 남아 있을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장로교의 헌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총회의 상위에 있는 권위인 헌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월 20일에 트렌턴(Trenton)에서 노회가 열렸는데,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메이첸을 재판하기 위한 7인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재판 그 자체는 1935년 2월과 3월 중에 열렸다. 메이첸에게는 변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3월 29일 메이첸은 유죄판결을 받아 목사직을 정직당했다. 메이첸은 1936년 총회에 항소를 하였으나 총회는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sup>160)</sup> 그러자 메이첸과 지지자들은 미국장로교회에서 탈퇴하여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를 조직하였다.<sup>161)</sup> 1936년 6월 11일 34명의 목사, 17명의 장로, 그리고 79명의 평신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정통장로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회합을 가졌으며, 미국장로교회의 진정한 영적 계승자들이 되기를 원했다.<sup>162)</sup> 이 총회에서 메이첸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메이첸은 1937년 1월 1일에 폐렴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sup>163)</sup> 메이첸은 기독교로 알려진 구속의 종교를 위해

---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332-352.

160)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488-491.

161) 홍철, “메이첸의 생애와 사상,” p. 165. 처음 이 교단의 이름은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였으나, 후에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CUSA)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1939년에 교단의 이름을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로 변경하였다. 이곳에서는 시기와 무관하게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통장로교회’를 사용하였다.

162) <http://www.opc.org/whatis.html#I>.

163)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500-

자신이 기독교가 아닌 이질적 종교라고 규정한 현대주의와 투쟁하는 삶을 마감하였다.<sup>164)</sup>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메이첸이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돌연 사망한 후 근본주의 진영의 새로운 지도자로 매킨타이어가 등장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성장하였던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를 미국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공헌했으나, 동시에 근본주의의 쇠퇴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다.

#### (1) 정통장로교 내부의 갈등과 원인

미국장로교회 내에서 근본주의 논쟁이 진행되었을 때에 현대주의에 반대하였던 세력은 구학파의 전통을 좇는 배타적인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sup>165)</sup> 그들이 1936년 6월에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하였다. 배타적 보수주의자들은 메이첸을 지지했고, 근본주의자들의 중심에는 매킨타이어가 있었다.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했던 이 근본주의자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격렬한 근본주의자들로 간주되었다.<sup>166)</sup>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함으로써 현대주의와의 투쟁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자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정체성

---

508.

164) J. Gresham Machen, *God Transcendent*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pp. 131-132.

165) 김길성, “형룡 박사의 신학에 대한 이해와 평가,” 『신학지남』, 제 281호 (2004), p. 106.

166) [http://www.americanpresbyterianchurch.org/the\\_schism\\_of\\_1936.htm](http://www.americanpresbyterianchurch.org/the_schism_of_1936.htm)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으로 말미암아 새로 설립된 교단 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분열의 조짐은 메이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나타났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메이첸은 그 신학교를 통하여 구 프린스턴 신학교가 교수하였던 개혁신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주의에 반대해서 그 신학교를 지원했던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하였던 근본주의자들은 그 학교의 취지가 자신들이 원하던 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메이첸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도 기독교와 근본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sup>167)</sup>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노선에서 비롯된 균열 외에도 두 세력 사이에는 세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로 천년왕국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였고, 두 번째는 장로교독립선교부에 얽힌 문제였으며, 세 번째는 기독교윤리에 관한 것으로 술과 담배를 둘러싼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자유에 대한 문제였다.<sup>168)</sup>

1937년의 정통장로교회의 분열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교리는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었다.<sup>169)</sup> 메이첸은 무천년주의자였고, 매킨타이어

---

167)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p. 458-459.

168) 홍 철, “미국장로교회의 분열에 나타난 메이첸과 매킨타이어의 의견 차이들,” pp. 358-364.

169) Jeffrey Khoo, *Fundamentals of the Christian Faith: A Reformed and Premillennial Study of Christian Basics*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5), pp. 135-136. “천년왕국”(千年王國, millennium)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천’(千)을 의미하는 *mille*와 ‘해’(年)를 의미하는 *annus*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천년’을 의미한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의 통치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섯 번 ‘천년’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는 전천년주의자였다.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전천년주의자들이었다.<sup>170)</sup> 1929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될 때 그 학교의 종말론(eschatology)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았다. 교단 내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문제들이 생기자 정통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진을 통하여 교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려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진 중의 몇이 세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시작하였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다비(John Nelson Darby)가 주도하였던 형제단운동(Brethren Movement)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세대주의”라는 말은 인간의 역사를 ‘세대’(dispensation)를 따라 구분한 데서 유래했는데, 고전적인 세대주의는 인간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구분했다. 이러한 세대구분은 비성경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sup>171)</sup>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부의 머레이(John Murray)는 1936년 봄에 “개혁신앙과 현대의 대체물들”(The Reformed Faith and Modern Substitutes)에 관한 논문들을 『프레스비테리언 가디언』(Presbyterian Guardian)지(誌)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메이첸이 주도하여 1935년에 설립한 『가디언』의 편집인은 자신이 전천년주의자였기 때문에 머레이의 논문을 통해 개혁주의 동료들로부터 근본주의자들을 축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머레이도 자신의 논문이 아직 전형적인 세대주의에 대해서만 다루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매킨타이어의

---

170) George M.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 Fuller Seminary and the New Evangelical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7), pp. 43.

171) Jeffrey Khoo, *Dispensationalism and Covenant Theology*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10), pp. 3-5.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반발은 사실 머레이 보다는 카이퍼(R. B. Kuiper)를 향한 것이었다. 카이퍼는 근본주의자들과 스코필드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세대주의자들을 통틀어서 “반(反)-개혁주의적 이단들”(anti-reformed heresies)로 지칭했다. 이것은 분명히 전천년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매킨타이어와 버스웰(J. Oliver Buswell)은 세대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전천년주의자들이었으며, 세대주의는 구원론에 있어서 개혁신학과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버스웰과 매킨타이어는 세대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들보다는 세대주의에 대하여 관용적이었다.<sup>172)</sup>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차이는 끝까지 해결되지 못했고,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전천년주의 성향의 근본주의자들이 정통장로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173)</sup>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매크레이(Allan A. MacRae) 역시 전천년주의자였다. 그도 역시 버스웰과 매킨타이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후에 이 문제 때문에 매크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웨이스 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불거진 문제가 바로 장로교독립선교부에 관한 문제였다. 정통장로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그 교단은 선교부를 별도로 설

---

172) Jeffrey Khoo,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in Reformed Theology: The Contribution of J. O. Buswell to the Millennial Debate” i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4/4 (December 2001), pp. 698-699.

173) George M. Marsden, “Perspective on the Division of 1937,” in *Pressing Toward the Mark: Essays Commemorating Fifty Years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ed. by Charles G. Dennison & Richard C. Gamble (Philadelphia: The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86), pp. 300-308.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립하지 않고 장로교독립선교부를 계속해서 후원하였다. 당시의 정통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장로교독립선교부는 모두 메이첸의 최측근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킨타이어와 그의 측근들은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1933년 장로교독립선교부가 설립될 때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던 메이첸은 정통장로교회의 2차 총회 직후에 개최되었던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임원선거에서 회장에 재선되지 못했다. 메이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 혹은 같은 집단이 조직을 다시 통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메이첸은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장로교적인 성격을 중요시하였다. 메이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구 프린스턴의 전통을 계승한 것처럼 장로교독립선교부는 미국장로교의 선교부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독립’은 단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비장로교인인 개신교 보수주의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sup>174)</sup>

세 번째 논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도덕에 대한 문제였는데, 금주(禁酒)와 금연(禁煙)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정통장로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소비하는 것에 관한 논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교단은 완전한 금주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려있었다. 버스웰과 매킨타이어와 같은 근본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진이 술을 정죄(定罪)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예<sup>175)</sup>를 들어 절대 금주를 옹호하기를 거부하였다. 더구

---

174) Hart and Muether, *A Brief History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pp. 48-49.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생들이 교수들의 승인 하에 그들의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소문이 교회들에서 돌고 있었다.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진 중 얼마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 역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웨스트민스터 교수진의 대다수는 적당히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이 허용되던 비(非)-미국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총회에서 버스웰은 만일 교단이 음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버스웰이 속해 있던 시카고 노회로부터 완전 금주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결국 큰 표 차로 부결되었다. 총회 직후 버스웰과 매킨타이어의 지도를 따라 14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가 정통장로교회를 탈퇴하여 1937년에 성경장로교회를 설립하였다.<sup>176)</sup> 메이첸이 사망한 후 그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2)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의 출현

미국장로교회에서 있었던 근본주의 논쟁의 중심에는 메이첸이 있었으며, 1936년 메이첸을 중심으로 정통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1937년 정통장로교회가 분열되어 성경장로교회가 설립될 때에는 그 중심에 매킨타이어가 있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세 기관이 재조직되거나 새롭게 설립되었다.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장로교독립선교부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였고, 대회(大會, synod)의 형식으로 성경장로교회를 설립하였다. 성경장로교회의 설립자들은 웨이스 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도 설립하였다.

장로교독립선교부는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장로교독

---

175) 요한복음 2:1-11.

176) Hart and Muether, *A Brief History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pp. 49-50.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립선교부는 이전보다 더 근본주의적이 되었으며, 천천년주의를 표방하였다. 재편된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신학적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혁적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들 안에 가장 잘 요약된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교리적 체계를 받아들인다. (2) 근본주의적 -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근본주의 교리들 전체의 수용, 전파, 그리고 전투적 방어를 믿는다. 이는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 그리스도의 신성,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기적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代贖)의 속죄(贖罪),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의(義)와 평화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천년왕국 이전에 오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덧붙이는 바이다. (3) 분리주의적 - 우리는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의 분리가 성경적 명령이며 의무임을 믿는다. (4) 장로교회적 - 이것은 교회정치의 원리에 있어서 목사들 또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代議)적인 정치형태를 수용한다. (5) 독립적 - 이 선교부는 조직과 후원 모두에서 독립적인 선교부로 조직되었다. 이 선교부는 어떤 교회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sup>177)</sup>

1967년경에 장로교독립선교부는 다른 34개의 선교단체와 함께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CC)의 협력선교단체의 기관으로 존재하였다.<sup>178)</sup>

성경장로교회는 1937년 6월 4일에 설립되었다. 그날 저녁 일단의 무리가 필라델피아의 세인트 제임스 호텔의 회의실에서 회합을 가졌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최초로 “성경장로교 대회(大會)”를 조직하였다. 이 회합에서 「성경장로회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Bible Presbyterian Fellowship)이 채택되었다. 이 정관에서 성

---

177) <http://www.ibpfm.org/purpose.php>.

178)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 207.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경장로교회가 설립되게 된 세 가지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전천년주의, 장로교독립선교부, 그리고 금주의 문제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정통장로교회가 소수의 파벌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79)</sup> 매킨타이어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잡지인 『크리스천 비컨』(Christian Beacon)지(誌)는 “성경장로교 대회(大會)가 설립되다”라는 제목 하에 성경장로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미국장로교회의 공식적인 배교(背敎) 때문에, 그리고 정통장로교회의 미국장로교주의의 역사적 입장에서부터의 일탈 때문에,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장로교 대회를 조직하였다. 우리는 친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무오한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 안에 교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차 단언하는 바이다. ... 우리는 전천년주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모호한 상태로 두고 있는 특정한 표준들을 바로잡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우리는 장로교독립선교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꺼이 재차 단언하며 후원한다. 그리고 현대주의와 모든 종류의 불신앙에 대항하는 그 선교부의 단호한 증언에 동조한다.<sup>180)</sup>

성경장로교회의 첫 대회는 1938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뉴저지의 콜링스우드에서 콜링스우드 성경장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모두 39명의 목사들과 11명의 장로들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성경 다음으로, 그에 부속하는 두 번째 신앙의 표준으로서 역사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수용하였다. 전천년주의 신앙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그 교리를 분명히 하고자 이 문서들에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으며, 대의민주제에 입각한 장

---

179) Timothy Tow, *The Singapore B-P Church Story* (Singapore: Life Book Center, 1995), pp. 35-38.

180) *Christian Beacon*, August 31, 1939.

### III. 20세기 중기 근본주의 논쟁과 미국장로교회의 분열, 1922-1947

로교회의 정치형태를 수용하였다.<sup>181)</sup>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자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이 성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성경장로교회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장로교” 앞에 두었다.<sup>182)</sup>

성경장로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교회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다. 성경장로교회는 스스로를 전투적인 교회로 표방했다. 성경장로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였다.<sup>183)</sup>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이 전투가 교회 자체에 충성을 바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교회의 사명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84)</sup> 이 호전(好戰性)으로 인해 개신교 근본

---

181) Margaret G. Harden,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rivately published, 1966, pp. 62-64. 대회는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 책은 제2회 대회부터 1965년의 제29회 대회까지의 간략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182) K. C. Quik, *The McIntire Memorial: Carl McIntire 1906-2002* (Seoul: Truth & Freedom Publishing Co., 2005), pp. 126-127. 매킨타이어는 성경장로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성경장로교회는 배교한 미국장로교회가 버린 기독교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2. 성경장로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이다. 3. 성경장로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이다. 4. 성경장로교회는 20세기에 이 나라에서 일어난 다른 분리의 단체에게 교계의 손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하고 있다. 5. 성경장로교회는 성경을 설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이다. 6. 성경장로교회는 성경에 있는 언약의 특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언약의 표시와 보증으로서 유아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교회이다. 7. 성경장로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이다. 8. 성경장로교회는 신앙고백적인 교회이다. 9. 성경장로교회는 주로 독립적인 기관들을 통하여 그 사역을 하고 있다. 10. 성경장로교회는 그 33년의 역사에서 이 원칙들을 실험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183) McIntire, *McIntire Maxims*, p. 23.

184) Carl McIntire, *Modern Tower of Babel*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49), p. 83.

### 3. 정통장로교회의 분열

주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웨이스 신학교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전천년주의를 고수하였다. 1937년 여름에 매킨타이어의 주도 하에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매크레이 박사가 이 신학교의 초대 교장에 취임하여 1971년까지 재직하였다.<sup>185)</sup> 성경장로교회의 설립자들은 많은 유서 깊은 교단들의 배교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학교들의 변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도록 이끌었다. 신학교는 학부를 졸업한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되었다.<sup>186)</sup> 웨이스 신학교는 독립된 기관이었으면 어떤 교단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sup>187)</sup> 성경장로교회는 1938년 첫 대회에서 웨이스 신학교를 교단이 후원하는 신학교로 공인하였다.<sup>188)</sup>

---

185) [http://www.faiththeological.org/images/docs/fts\\_catalog.pdf](http://www.faiththeological.org/images/docs/fts_catalog.pdf). Faith Theological Seminary 2009-2011 Catalog, p. 18.

186) Allan A. MacRae, "The 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http://www.carlmcintire.org/information-macrae.php>

187) Margaret G. Harden,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 45.

188) Quack, *The McIntire Memorial: Carl McIntire, 1906-2002*, p. 175.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 (1) 국제기독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대립

20세기에 들어서 현대주의는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하였다. 1908년에 설립된 연방교회협의회(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CC)가 두드러진 보기였다. 이 단체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무오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전통적인 대속의 속죄교리 같은 것은 믿지 않았다.<sup>189)</sup> 이 연방교회협의회는 후에 미국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CC)가 되었다. 1941년에 매킨타이어와 그의 동료들은 연방교회협의회에 대항할 목적으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CCC)를 설립하였다. 미국교회협의회는 포용주의적인 현대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사회복음을 옹호하였다. 반면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sup>190)</sup>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친(親)-복음적이고 반(反)-현대주의적인 전투적인 단체였다.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

189) Carl McIntire, “Bible Presbyterian Church I.” <http://www.carl-mcintire.org/information-bpcl.php>.

190) Carl McIntir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nd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accv-nccc.php>.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다서 1:3)였다.<sup>191)</sup>

그러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대립은 미국 내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두 집단은 그들의 세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를 원했다. 그러한 시도를 먼저 한 쪽은 현대주의 진영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알게 된 매킨타이어는 평소 즐겨 쓰던 전술을 이용하여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영국개혁신교회(English Reformed Church)에서 현대주의자들보다 먼저 국제적인 근본주의 단체인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CCC)를 창설하였다.<sup>192)</sup>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제1회 총회는 29개국 대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For the Word of God for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말씀은 성경을, 증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였다.<sup>193)</sup>

현대주의자들 역시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설된 시기인 1948년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창설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교일치’(ecumenical)라는 용어는 헬라어 ‘오이쿠메네’(oijkoumevnh)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는 교회 역사에서 니케아회의(Council of Nicea, AD 325)와 콘스탄티노플회의(Council of Constantinople, AD 381)와 같은 교회의 원초적 종교회의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었

---

191) McIntire, “Bible Presbyterian Church I.” <http://www.carlmcintire.org/information-bpcl.php>.

192) Carl McIntire, “Professing Our Faith.” <http://www.carlmcintire.org/1957/index.htm>.

193) Carl McIntire, “The 20th Century Apostasy.” <http://www.carlmcintire.org/speeches-apostasy.php>.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선언했던 황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는 세계교회회의(ecumenical council)를 개최하고 자신의 권위 아래서 회합하도록 하였다.<sup>194)</sup> 사무엘(David Samuel)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 종교일치 운동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제국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서술하였다.<sup>195)</sup> 종교일치운동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그 운동의 장기적인 목적이 많은 종교들을 통합하여 전 세계를 망라하는 하나의 거대한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만드는 것이며, 바로 그 종교가 적(敵)-그리스도(Anti-Christ)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6)</sup>

현대의 종교일치 운동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현대주의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던 때였다. 세계교회협의회 의 역사는 통합의 역사였다. 세계교회협의회 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20세기 선교연합운동의 시발점이 된 1910년 에딘버러(Edinburgh)에서 열린 세계선교사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였다.<sup>197)</sup> 1921년에는 국제선교사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가 설립되었고, 1925년에는 ‘생활과 실천’(Life and Work)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27년에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이 시작되었다. ‘생활과 실천’ 운동은 1937년의 옥스퍼드 대회에서

---

194) Suan Yew Quek, *Contemporary Theology IV*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3), p. 2.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15회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문화적 혹은 정치적 의미가 함축하지 않은 단순히 “전 세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과 사도행전 17:6의 경우에는 로마제국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단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95) David Samuel, *The End of the Ecumenical Movement* (Rams-gate, Kent: The Harrison Trust, 1990), p. 2.

196) Quek, *Contemporary Theology IV*, p. 16.

197)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p. 141.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신앙과 직제’ 운동과 결합하여 세계교회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즉시 실현되지 못했다. ‘생활과 실천’ 운동과 ‘신앙과 직제’ 운동은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로 통합되었다.<sup>198)</sup> 국제선교사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는 1961년 뉴델리(New Delhi)에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통합의 결과는 조직의 통합을 위해 서로 견지하고 있던 목적의 적절한 양보와 혼합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 간의 대화와 사회의 개선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sup>199)</sup>

현재 세계교회협의회는 다양한 종교적 성향을 가진 교단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세계교회협의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른 형태의 국경의 장벽,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있다.<sup>200)</sup> 1948년에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차 총회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바르트(Karl Barth)가 기조연설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적 노선이 현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했다. 1968년에 스웨덴의 옘살라에서 열린 4차 총회에서는 급진적 개혁과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법화함으로써 모임의 의도에 대하여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 후로 세계교회협의회는 공산주의와의 연계성을 계속 의심받아 왔다.<sup>201)</sup> 4차 총회에서는 그 외에도 선교의 갱신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선교의 본질을 인간성의 회복으로 보았다. 이 총

---

198) Quek, *Contemporary Theology IV*, “Appendix II.”

199) 김명혁,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변천과 그 동향,” 『신학지남』, 제184호 (1979), p. 95.

200) “The WCC and the ecumenical movement.” <http://www.oikoumene.org/en/who-are-we/background.html>.

201) 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정음출판사, 1983), p. 92.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회 직후에 세계교회협의회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필립 포터(Philip Porter)는 1969년 5월 25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지(誌)에 “세계교회협의회는 만일 폭력이 정치적·경제적 독재를 전복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 폭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기고하였다. 1971년부터 세계교회협의회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의 회의를 지원했으며, “다른 신앙들”이라고 부르던 타종교를 “살아있는 신앙들”로 부르기 시작했다. 1973년 1월에 방콕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제8차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전통적 선교의 시대는 지나갔고 세속적 사회주의적 범세계종교적 선교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였다.<sup>202)</sup> 박형룡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신학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교리해석의 자유는 정통신학으로부터의 이탈을 격려하고 사상의 혼란을 가져와 자유주의 세력을 강화하여 준다고 보았다.<sup>203)</sup>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양자를 놓고 볼 때 세계교회협의회는 포용적이고,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배타적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를 포용하며 그 회원권을 개방하였지만,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대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등을 배격하며 철저히 복음주의적인 개신교회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sup>204)</sup> 신학적으로 볼 때, 세계교회협의회는 현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수용하였지만, 국제기독교교회협의

---

202) 이은선, “세계교회협의회 조직과 신학: 복음주의 관점에서의 비판,” 『성결교회와 신학』, (2009), pp. 72-74.

203) 박형룡,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리와 교리,” 『신학지남』, 제 141호 (1968), pp. 3-11.

204) Carl McIntir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WccViccc.php>.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친 사람은 박형룡이었다. 박형룡은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메이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박형룡은 현대주의는 물론이고 신복음주의도 배척하였으며, 오직 근본주의만을 정통기독교로 인정하였다. 박형룡은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를 지지하였으며, 세계교회협의회에 반대하였다.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세계교회협의회 가입문제로 인해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열되었다.<sup>209)</sup>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지부장이었던 마두원(D. R. Malsbary)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때 성경장로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기는 했으나 그가 197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한국의 성경장로교회는 서서히 근본주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sup>210)</sup>

미국의 성경장로교회와 웨이스 신학교가 지향하였던 근본주의는 싱가포르에도 영향을 미쳤다. 웨이스 신학교의 학생이었던 티모시 토우(Timothy Tow Siang Hui)는 싱가포르 성경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 in Singapore)와 원동신학원(遠東神學院, Far Eastern Bible College: FEBC)을 설립하였다. 그는 미국의 웨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매크레이, 버스웰로부터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였다.<sup>211)</sup> 그는 버스웰의 『조직신학』 책<sup>212)</sup>을 원동신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재로 사용함으로써 전천년주의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원동신학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표현되어 있는 전통적인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며, 근본주의적 신앙과 분리주의

---

209) 양낙홍, “1959년 한국 장로교의 분열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23 (2005), pp. 130-131.

210) “말스베리 선교사,” 『기독신보』, 2008년 5월 18일.

211) Timothy Tow, *The Story of My Bible-Presbyterian* (Faith.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1999), p. 15.

212) James Oliver Buswell,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2).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를 강조하고 있다. 토우는 특별히 매킨타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sup>213)</sup> 1950년 싱가포르에 첫 성경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sup>214)</sup> 티모시 토우는 싱가포르 성경장로교회의 뿌리를 일곱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미국적인 뿌리라고 말했다. ‘성경장로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미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15)</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의 성경장로교회는 근본주의적이다. 티모시 토우는 싱가포르의 성경장로교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성경장로교회는 분리주의 교회이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명령하셨다. (2) 종교일치주의는 로마 가톨릭주의와 개신교를, 더 나아가서 결국은 기독교와 다른 모든

---

213) Timothy Tow, *Disciples of McIntire*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2), pp. 104-105. “내가 1948년 1월에 공부를 하기 위해 웨이스 신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예배시간에 매킨타이어 박사라고 하는 굉장한 설교가가 있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로 구성된 교회의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일치운동에 도전하기 위해 20세기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다시 결합하여 하나의 세계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었으며, 모든 인간의 종교들을 함께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배교와 싸우기 위해 그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던 16세기 종교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우리와 같은 젊은 신학도들에게 분리적인 교회협의회인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개신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20세기 종교개혁”이라고 불렀다.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말처럼, 나의 마음이 기이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그 예배의 말씀에 사로잡혔으며, 그 날에 나는 매킨타이어의 제자가 되었다.”

214) Tow Siang Hwa, *Anniversary of the Bible-Presbyterian Movement 1950-2010* (Singapore: Calvary Pandan Bible-Presbyterian Church, 2010), pp. 124-127. 설립 60년이 되는 2010년 현재 싱가포르 내에 46개의 성경장로교회가 있으며, 세계 각처에 84개의 성경장로교회들이 있다.

215) Timothy Tow, *What is Bible-Presbyterianism?*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7), pp. 9-18.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로 사탄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다. (3) 성경적 근본주의와 정통이 항상 분명하고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개혁신앙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5)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개혁주의적이며 전천년주의적이다. 삶에 있어서 우리는 분리주의적이며 복음주의적이다.<sup>216)</sup>

### (2) 공산주의와의 대립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반공정책을 고수했다. 매킨타이어는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체계 안에는 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조화되는 것도 전혀 없다고 파악하여 두 세력은 같게 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어법을 사용하여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가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사기꾼으로 보았다.<sup>217)</sup> 매킨타이어는 “공산주의에 저항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배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14항목으로 제시하였다.

1. 공산주의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다. 2. 공산주의는 성경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3. 공산주의는 마귀의 역사(役事)이다. 4. 공산주의는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한다. 5.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적 세상의 왕국을 제공한다. 6. 공산주의는 완전한

---

216) Timothy Tow, *50 Years Building His Kingdom: Golden Jubilee Magazine 1950-2000* (Singapore: Life Bible-Presbyterian Church, 2000), pp. 76-83.

217) Carl McIntir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xism and Christianity?”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mVc.php>.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예속의 체계이다. 7. 공산주의는 주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인 선교를 금한다. 8. 공산주의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살해하고 있다. 9. 공산주의는 교회를 이용한다. 10. 공산주의는 자유에 대한 완전한 적이다. 11.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강령을 젊은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12. 공산주의는 미국과 미국의 헌법을 공격한다. 13. 공산주의는 “평화공존”과 속이는 “평화”를 옹호한다. 14.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공격한다.<sup>218)</sup>

위에서 특기할 항목은 12번 “공산주의는 미국과 미국의 헌법을 공격한다.”이다.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반미(反美)를 표방하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이유 외에도 매킨타이어가 반공정책을 지속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교회협의회와 공산주의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었다. 매킨타이어는 세계교회협의회가 현대주의적이었으며,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단체를 더욱 적대시하였다. 매킨타이어는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의 자격으로 세계교회협의회에게 세계교회협의회가 공산주의자들의 회원권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19)</sup>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Cold War)이라는 세계질서가 도래했다.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던 소련은 서로를 적대시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냉전적 질서에서 치러진 최초의 국제전이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공산주의의 세력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신속히 개입했을 때 그것을 반대한 미국의 교회는 거의 없었다. 미국 교회들이 한국전쟁을

---

218) Carl McIntire, “Why Christians Should Fight Communism.”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fightcommunism.php>, “A Christianity which will not resist Communism is apostate.”

219) Carl McIntire, “ICCC Petitions WCC to Remove Communist Agents From Membership.” <http://www.carlmcintire.org/newspapers-christiannews-911007.php>.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였다.<sup>220)</sup> 미국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 역시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의 부인이 1949년 3월 17일 연희전문학교 선교사 부인들의 다과회에서 남로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의해서 피살되었다. 언더우드는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의 독재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이론으로 생각하는 열린 태도”는 오직 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며 공산주의에 대한 더 적대적 태도를 주문했다. 선교사들은 반(反)-공산주의 입장에서 한국전쟁 중 미군에게 적극 협력하였다.<sup>221)</sup>

구체적으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등의 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공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당연히 한국을 지원하였다. 매킨타이어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누구보다도 앞서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호소했다. 매킨타이어가 한국 원조를 요청하는 전보문의 번역문이 『기독교와 용공정책: 진상검토자료』(1951)이라는 소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매킨타이어는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1950년 6월 25일에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남한)을 위하여 무기, 비행기와 인적자원을 포함하는 우리의 모든 원조로써 원조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는 세계 앞에서 한국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자유의 고상한 원칙에 기(基)한 강력한 지도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우유부단할 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악마적 방법을 우리가 반항하기만 하면

---

220) 류대영, 『미국종교사』, pp. 473-474.

221) 이종만, “한국전쟁기간 미국 북장로교회 한국선교부의 활동,” 『이화사학연구』, 제40집 (2010), pp. 228-234.

## 1. 근본주의 교단의 대외 활동

그 주의(主義)를 대적하여 멈출 수 있습니다. 이 항전을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가 동경(憧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한 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저 실패하면 보다 더 큰 환난이 봉착(逢着)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sup>222)</sup>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1950년 7월 9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이 위원회는 한국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의 ‘경찰행동’을 지지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가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위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유일한 논쟁점은 교회가 세계질서의 방어를 위해 무력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토론에 이어 “한국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가 중앙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승인되었는데, 이때 공산권 교회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성명서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해 있던 공산권 교회들의 항의와 비판을 불러왔다. 특별히 동유럽과 중국의 교회들은 서구 교회들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부속물이자 국가 외교정책의 대리인으로 처신한다면서 한국전쟁에서도 그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산권 교회들은 침략보다는 혁명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반공정책을 펼치고 있던 서구국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쨌든 당시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해 있던 공산권 교회들은 그들이 소속된 국가와 한국전쟁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다.<sup>223)</sup>

---

222) 주강식, 『한국교회와 ICC』 (고신대학교대학원, 2008), pp. 60-61.

223) 김홍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한국전쟁 성명과 공산권 교회들,”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4집 (2003), pp. 211-231.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물론 이는 서구의 국가들에 소속된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매킨타이어의 냉전적 사고방식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는 닉슨(Nixon) 대통령의 중공(中共, Red China)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1972년 2월 20일 일요일, 닉슨이 북경에 도착하는 날에 백악관 앞에서 예레미야 8:11<sup>224)</sup>을 본문으로 하여 “승리에 의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일단 닉슨이 주일(主日)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급한 후, 북경에는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중공에서 복음 전도로 얻은 모든 열매들이 파괴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닉슨을 억압에 대하여, 침략에 대하여, 전쟁포로에 대하여,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침묵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닉슨이 추구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승리를 통해서 쟁취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매킨타이어는 친(親)-공산주의적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들의 오류를 공격하였다.<sup>225)</sup>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근본주의자들에게도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3월 매킨타이어의 죽음 이후 풀러신학교의 교장 리차드 모우(Richard J. Mouw)는 매킨타이어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논평했다. 그는 매킨타이어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sup>226)</sup>

미국장로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매킨타이어와는 다른 견해를

---

224) 예레미야 8:11,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225) Carl McIntire, “Marx of Christ in the Churches?” <http://www.carlmcintire.org/speeches-marx.php>.

226)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pp. 283-284.

## 2. 근본주의의 쇠퇴

가졌다. 1953년 10월 21일에 열렸던 장로교 총회에서는 모든 장로교 회중에게 낭독해야 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장로교 총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이며 이는 공산주의 자체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총회는 의견의 불일치가 국가에 대한 배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27)</sup> 공산주의에 대한 견해는 미국장로교회와 매킨타이어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안이다.

## 2. 근본주의의 쇠퇴

### (1) 신복음주의의 출현

매킨타이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던 1930년대 이후의 근본주의를 그 이전의 근본주의와 구분하여 후기 근본주의 혹은 신(新)-근본주의(Neo-fundamenta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28)</sup> 이것은 근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비판인데, 이러한 비판은 근본주의자들이 가졌던 독특한 교회관 때문이었다. 근본주의자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분리라고 믿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비롯되었다. 메이첸은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첫째는 기독교가 문화에 예속되는 경우, 둘째는 종교에 분명한 자리를 주기 위해 문화를 파괴하는 경우, 셋째는 성별(聖別, consecration)로 구분하였다. 메이첸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접근법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예술과 학문을 파괴하거나 그것들에

---

227) 김선옥, “미국 개신교 신앙과 정치 실천의 변화: 장로교와 침례교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2집 (2005), p. 277.

228) 간하배, 『현대신학해설』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0), p. 159.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무관심하지 않고, 순수한 인문주의자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계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성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sup>229)</sup> 웨버(Robert E. Webber)는 이것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분리모델(separational models), 일치모델(identificational models), 그리고 변혁모델(transformational models)의 세 가지로 도식화하였다.<sup>230)</sup> 현대주의자들은 일치모델을, 근본주의자들은 분리모델을 선호하였다.

근본주의의 지도자였던 매킨타이어는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주장하였다.<sup>231)</sup> 그의 영향력 하에서 ‘분리주의자’(separatist)는 근본주의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분리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근본주의자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근본주의자는 참된 분리주의자”였다.<sup>232)</sup> 그러나 이러한 근본주의자들의 분리적인 태도에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근본주의자들의 분리주의와 호전적 성향에 반대하며 스스로를 ‘복음주의자’(evangelical)로 부르면서 근본주의자들과 거리를 두는 새로운 유형의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했다.<sup>233)</sup> 원래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보다 광범위하고 오래된 용어로,

---

229)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Culture” in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pp. 401-402.

230) Robert E. Webber, *The Secular Saint: A Case for Evangelical Social Responsibilit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231) 홍 철,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현대 복음주의의 발흥과 분열의 역사적 고찰,” 『성경과 신학』, 제48호 (2008), p. 50.

232) Jeffrey Khoo, *Biblical Separation: Doctrine of Church Purification and Preservation*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1999), p. 14.

## 2. 근본주의의 쇠퇴

과거에는 보수주의처럼 근본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복음주의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교리를 복음으로서 설교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점차 변화되었다. 복음주의는 새롭게 정의되었는데, 그것을 이전의 전통적인 복음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신(新)-복음주의(Neo-evangelicalism)라고 불렀다.<sup>234)</sup> 신복음주의자들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에서 변혁모형을 채택하였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비복음주의자들과의 대화와 학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리고 성실한 사회적 관심 등을 통하여 근본주의를 교회의 주류와 결속시키려 하였다.<sup>235)</sup>

신복음주의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켄가(Harold John Ockenga)였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생이었는데, 메이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을 때 스승인 메이첸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생이 되었고, 그 학교의 최초의 졸업생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매킨타이어와 함께 공부했으며 둘은 오랜 친구였다. 매킨타이어는 근본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켄가는 신복음주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오켄가는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었다.<sup>236)</sup> 그는 분리주의(coming-out-ism)를 거부하고, 대신 변혁모형에 근거를 둔 ‘침투’(infiltration)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신복음주의의 전술로 채택하였다.<sup>237)</sup> 오켄가는 미국 사회에 대한 미국

---

233) Peter Masters, *Are We Fundamentalists?* (London: Sword & Trowel, 1995), p. 5.

234) Suan Yew Quek, *Contemporary Theology II*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7), pp. 5-11.

235) Robert E. Webber,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p. 35.

236) John E. Ashbrook, *New Neutralism II: Exposing the Gray of Compromise* (Painesville: Here I Stand Books, 1992), pp. 4-5.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개신교회의 강력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그 방법은 외부에서 극단적 근본주의자의 전형으로 여기던 매킨타이어의 추종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sup>238)</sup>

신복음주의는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모두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신복음주의는 초자연적인 것의 수용과 기록된 말씀의 무오(無誤)에 강조를 둔 점에서 현대주의와 다르며, 분리주의 거부와 오늘날의 신학적 대화에 스스로 관여하기로 결정한 점에서 근본주의와 다르다. 신복음주의는 삶의 사회학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을 향한 복음의 적용에 새로운 강조를 두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기독교 신학의 재정립, 신학적 논쟁의 재사용, 교단적 지도력의 회복, 그리고 태고의 사람, 홍수의 보편성,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기타 내용들과 같은 신학적 문제들의 재검토에 역점을 두었다.<sup>239)</sup>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신복음주의의 새로운 시도는 일종의 타협이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좌편에는 현대주의 그리고 우편에는 근본주의를 둔 중립주의가 바로 신복음주의라고 보았다. 근본주의자인 매킨타이어는 “근본주의자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변호한다. 신복음주의자는 그 신앙과 현대의 자유주의 혹은 현대주의와의 화해와 적응을 모색한다.”<sup>240)</sup>고 말하며 신복음주

---

237) Daniel J. Ebert III, *Will Our Sons Defend the Faith?*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1994), pp. 119-120.

238) Marsden, *Reforming Fundamentalism*, pp. 64-67.

239)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Foreword.”

240) Carl McIntir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undamentalism and New Evangelicalism?”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fundamentalismVneuevangelicalism.php>.

## 2. 근본주의의 쇠퇴

의자와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1941년에 매킨타이어가 근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설립하자, 1942년에 매킨타이어의 전투적 근본주의 집단이 너무 편협하다고 느낀 신복음주의자들이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를 설립하였다.<sup>241)</sup> 이 복음주의협의회 초대 회장이 오켄가였다. 이 두 단체로 말미암아 1940년 초에 미국 근본주의 진영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신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1948년에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된 것이었다. 이 신학교의 초대 교장 역시 오켄가였다. 후에 풀러 신학교는 그 신학교의 설립자였던 찰스 풀러(Charles E. Fuller)의 아들 다니엘 풀러(Daniel Fuller)로 인해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니엘 풀러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에서 신정통주의(Neo-orthodoxy)를 주창하던 칼 바르트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성경비평 이론을 받아들였으며,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였다. 신정통주의는 현대신학의 일파(一派)로 성경에 근거를 둔 근본적 교리들을 무시하였다. 개혁주의 내에서 온건파들은 신정통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신정통주의를 기만적이고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 배척하였다.<sup>242)</sup>

풀러 신학교가 성경의 무오성과 같은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린젤(Harold Lindsell)을 비롯하여 성경무오의 교리를 지지하던 교수들은 풀러 신학교를 떠났다. 그 이후로 점차 ‘신복

---

241) Carl McIntire, “The Life and Ministry of Carl McIntire.”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EdReese.php>.

242) David F. Wells, ed., 『남부 개혁주의 전통과 신정통신학』, 박용규 역 (서울: 도서출판앰마오, 1992), p. 133.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음주의'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sup>243)</sup> 그 대신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신복음주의 대신에 사용되고 있다. 린zell은 『성경을 위한 전투』에서 한 번 성경의 무오성이 포기되면 그것은 결국 배교(背敎)로 끝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다른 중요한 교리들의 포기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sup>244)</sup> 이 학교는 신복음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근본주의를 대변하던 웨이스 신학교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신복음주의 운동의 방법론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었다. 그는 본래 근본주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근본주의자들은 그를 지지하였고 후원하였다. 그런 그가 근본주의 진영에서 신복음주의 진영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뉴욕에서 개최된 집회였다. 1951년 그레이엄은 뉴욕의 근본주의 교회들에 의해 초청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뉴욕의 개신교협의회에 소속된 현대주의적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보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그레이엄의 집회로부터 이탈하였다. 1957년 뉴욕에서 열린 집회의 일반위원회는 어림잡아 약 120명의 현대주의자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약 20명의 근본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행위원회는 약 15명의 현대주의자들과 다섯 명의 근본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sup>245)</sup>

---

243) 홍 철,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현대 복음주의의 발흥과 분열의 역사적 고찰,” pp. 59-61.

244)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 142.

245) Ernest D. Pickering, *The Tragedy of Compromise: The Origin and Impact of the New Evangelicalism* (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94), pp. 54-55.

## 2. 근본주의의 쇠퇴

매킨타이어는 그레이엄의 집회를 “종교일치적인 전도”라고 비판하였다.<sup>246)</sup>

그레이엄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복음주의 운동을 지성적으로 변호하고 주장하기 위해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지(誌)를 창간하고 후원자가 되었다. 칼 헨리(Carl F. H. Henry)가 편집인으로 추대되었으며, 오케가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sup>247)</sup> 그레이엄은 50년 동안 9명의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사실상 대통령의 목사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그의 관계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존슨 시절에는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고,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클린턴의 성추문 때에는 침묵을 지켰다.<sup>248)</sup>

1960년대 이후 신복음주의는 기독교 우파(Religious Right)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기독교 우파는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성의 개방에 반대하고 여성과 소수인종집단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과 줄기세포 연구에도 반대했다. 이러한 흐름의 배후에는 ‘젊은 신복음주의자들’(younger evangelicals)이 있었다. 이 젊은 신복음주의자들은 초기 신복음주의자들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인 세력과의 공조를 시도하였다.<sup>249)</sup> 기독교 우파는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 활동을 하고, 선거 때가 되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후보자를 지지했다. 이때 낙태

---

246) Carl McIntire, “Ecumenical Evangelism” <http://www.carlmcintire.org/t-sermons-ecumenical.php>.

247) 홍치모, “미국교회의 보수신앙 운동의 변천: G. M. Marsden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제228호 (1991), pp. 212-215.

248) McGrath,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pp. 638-639.

249) Robert E. Webber, *The Younger Evangelica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2), p. 92.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문제는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고 보수적 유권자를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신복음주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공화당을 지지하였다.<sup>250)</sup> 예를 들어 레이건(Ronald Reagan)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1980년과 1984년의 두 차례의 선거에서 기독교 우파는 공화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기독교 우파는 신복음주의자인 파웰(Jerry Falwell)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였다.<sup>251)</sup> 이 무렵에 신복음주의는 장로교의 영역을 넘어서 초교파적인 양상을 띠었으며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예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백인 침례교인들의 경우 두 차례의 투표에서 85%와 80%의 비율로 레이건을 지지했다. 반면 유대인들은 전국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흑인들 역시 민주당을 지지했다. 레이건은 그들 가운데서 10%의 지지율만을 확보했을 뿐이었다.<sup>252)</sup>

1960년대에 이르러 신복음주의자들은 미국 개신교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을 제치고 주도권을 획득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전투적 근본주의는 미국 사회에 대하여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이 그들 진영 자체의 분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이 당시 미국 사회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

250) 류대영, 『미국종교사』, pp. 512-517.

251)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p. 445-446.

252) Ibid., pp. 453-454.

## 2. 근본주의의 쇠퇴

다. 이 무렵의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은 미국 내의 문제보다는 대외활동에 더 치중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쟁(1955-1975)의 경우 한국전쟁과 더불어 냉전기간의 대표적인 전쟁이었지만 근본주의자들은 개인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찬성하는 성향이 강했지만 한국전쟁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복음주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 때 신복음주의자였던 쉐퍼(Francis A. Schaefer)는 복음주의가 이 세대의 세상 정신에 적응하여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경관에서 이탈하였으며, 종교적 문제들은 물론이고 과학과 역사 그리고 윤리적 영역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sup>253)</sup> 근본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신복음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신복음주의가 그 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표명하였던 타협과 적응의 속성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본주의는 신복음주의와의 논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투적인 태도를 지속했다. 근본주의자들은 신복음주의자들을 기독교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주의자들보다 기독교에 더 해를 끼치는 존재로 인식했다.<sup>254)</sup>

### (2) 전투적 근본주의 진영의 분열

전투적 근본주의 진영은 1950년대 이후에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1930년대 중반 이후의 근본주의 운동이 한

---

253) Francis A. Schaefer,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4), p. 37.

254) Quek, *Contemporary Theology II*, pp. 1-5.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사람의 역할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매킨타이어였다. 그는 31세 때인 1937년에 성경장로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192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 재학시절부터 2002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70년 이상을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근본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열정은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그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점차 지쳐 뒤처지기 시작했고, 그의 후세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매킨타이어는 그런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다. 결국 근본주의의 세력은 분열을 거듭하며 소규모 단위로 재편되었다. 그 와중에 매킨타이어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다.

전투적 근본주의 진영의 분열은 1950년대에 표면화되었다. 우선 분열은 성경장로교회와 관계가 있던 교육기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장로교회에 의해 공인된 교육기관으로는 웨이스 신학교, 하일랜드 대학교(Highland College), 셸튼 대학교(Shelton College), 그리고 리포메이션 성경연구원(Reformation Bible Institute)이 있었다.<sup>255)</sup> 하일랜드 대학교의 교장이었던 레이번(Robert G. Rayburn)은 ‘20세기 종교개혁운동’(Twentieth Century Reformation Movement)<sup>256)</sup>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성경장로교회 내부에서도 1953년부터 서서히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한 반대여론이 등장하는

---

255) Harden,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 128.

256) Carl McIntire, *Twentieth Century Reformation*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45). 매킨타이어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배교(背敎)가 만연한 20세기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는 마땅히 행동하는 전투적 교회이어야 하며, 분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근본주의의 쇠퇴

데, 1954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7회 대회에서 미국기독교 교회협의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속되었다.<sup>257)</sup> 레이번은 하일랜드 대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하고, 1956년에 설립된 카버넌트 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같은 해에 올리버 버스웰은 셸턴 대학의 교장직을 사임하고 카버넌트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다음 해에는 1938년부터 웨이스 신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해 왔던 레어드 해리스(Laird Harris)가 카버넌트 신학교 교수단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공산주의, 현대주의, 종교일치운동 등에 대항하여 싸우던 매킨타이어의 전투적 근본주의 활동에 반대하였다.<sup>258)</sup>

웨이스 신학교는 이후에도 두 번의 분열을 더 겪었다. 1971년 그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맥크레이가 대부분의 학생들과 함께 신학교를 떠나 펜실베이니아의 헤트필드(Hatfield)에 비블리칼 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하였다. 비블리칼 신학교는 매킨타이어의 전투적 근본주의와 다른 길을 걸었다. 웨이스 신학교에서는 또한 한 번의 분열이 1983년에 있었는데, 종말론과 행정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던 몇 교수들이 웨이스 신학교를 떠나 워싱턴 주(Washington State)의 타코마(Tacoma)에 존 배틀(John Battle)을 중심으로 하여 웨스턴 개혁 신학교(Western Reformed Seminary)를 설립하였다.<sup>259)</sup>

성경장로교회 자체에서도 공식적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55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8회 성경장로교 대회가 주

---

257) Harden,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 136.

258)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325.

259) Tow, *The Singapore B-P Church Story*, p. 40.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목되는데, 이 대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성경장로교회의 기본노선과 관련된 것으로 세 가지 사항이 특히 중요했다. 첫째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둘째는 성경 안에 있는 명령으로서의 신앙을 위한 분리와 전투적 입장에 관한 것이었으며, 셋째는 성경장로교회가 후원하던 독립기관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건들이 문제가 되어 실제로 교단이 분열된 것은 1956년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제19회 대회였다. 이 대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되었는데, 레어드 해리스가 의장이 되었으며, 반(反)-매킨타이어 세력들의 모임이었다. 이 대회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탈퇴하였으며, 장로교독립선교부, 웨이스 신학교, 하일랜드 대학교, 셸튼 대학교, 그리고 『크리스천 비컨』지(誌)의 공인을 철회하였다. 그 대신에 교단이 통제할 수 있는 대학교와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의하였다.<sup>260)</sup>

이 대회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조직의 통제에 관한 것으로, 매킨타이어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교단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기관들이 교단이 아닌 매킨타이어의 통제 하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둘째는 종말론에 관한 것으로, 전천년주의를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만들겠다는 매킨타이어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셋째는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매킨타이어가 과도한 반공(反共) 활동에 성경장로교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넷째는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교회의 분리에 관한 것으로, 매킨타이어의 강력한 분리주의 입장에 반대하였다. 매킨타이어는 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리주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매킨타이어 반대파는 그 교리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매킨타이어

---

260) Harden,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 95.

## 2. 근본주의의 쇠퇴

의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61)</sup> 당시의 한 일간지는 성경장로교회가 “비민주적인 지도력”을 이유로 매킨타이어를 거부하고 교단이 분리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더불어 웨이스 신학교와 셸턴 대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동일한 이유로 그 해 학기말에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웨이스 신학교의 교수이자 그 대회 의장이었던 해리스는 교리적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족”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식적인 성명서가 76대 16으로 통과되었는데 그 성명서는 “가시(可視)적인 교회의 정결함에 대한 입장과 현대주의와 포용주의로부터의 분리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관계단절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와 관계를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sup>262)</sup>

제19회 대회는 1956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오하이오의 콜럼버스(Columbus)에서 제20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로 이 그룹은 ‘콜럼버스 대회’(Columbus Synod)로 불리게 되었다. 1961년 7월에 콜럼버스 대회는 새로운 교단이 되었으며 이름을 “복음주의 장로교회”(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EPC)로 정했다.

매킨타이어 측도 1956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20회 대회를 콜링스우드(Collingswood)에서 개최하였다. 매킨타이어 측은 “콜링스우드 대회”(Collingswood Synod)로 불렸다. 이 대회에서는 매킨타이어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회의 주제는 “20세기 종교개혁을 진전시키는 20세기 대회”였다. 콜링스우드 대회는 제일 먼저 미국기

---

261) Beale, *In Pursuit of Purity*, pp. 325-326.

262)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 April 16, 1956.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독교교회협의회와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sup>263)</sup>

매킨타이어의 독단적인 행동은 때때로 같은 노선을 걷고 있던 근본주의자들과의 충돌도 야기하였다. 매킨타이어는 1968-1969년에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의 자리에서 축출되었다. 매킨타이어와 그 측근들은 1970년 10월 28일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회의 공식 회무처리 시간 전인 경건회를 가질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회의를 접수하고 자신들을 실행위원들로 선출하였으며 매킨타이어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은행예금 구좌와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성경장로교회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였고, 매킨타이어 측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sup>264)</sup>

### 3. 세속주의의 영향

#### (1) 세속화 논쟁

1960년에 이르러 미국의 개신교 내에서는 세속화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우려는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Concilium Vaticanum I, 1869-1870)를 통해 세속주의(secularism)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sup>265)</sup> 이 공의회가 관심을

---

263) Harden,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p. 96-100.

264) Beale, *In Pursuit of Purity*, p. 327.

265) "SESSION 3:24 April 1870.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atholic faith." <http://www.dailycatholic.org/history/20ecume1.htm> #SESSION 3:24 April 1870.

### 3. 세속주의의 영향

기울었던 세속주의는 “합리주의”(rationalism) 혹은 “자연주의”(naturalism)였다. 그러나 20세기 전환기에 세속주의는 더욱 진전되어 교회 밖의 세상은 점차 신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모습의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기독교는 이러한 세속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더욱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Concilium Vaticanum II, 1962-1965)를 통해 세속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화해와 쇄신을 통해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된 새롭고 진보적인 가톨릭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그 기본 목적이었다.<sup>266)</sup> 다시 말해 가톨릭교회가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적응하려는 시도였다. 가톨릭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주의를 세속화(secularization)된 교회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sup>267)</sup> 가톨릭교회는 세속주의에 저항함과 동시에 세속화를 통해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시도는 현대주의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현대주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sup>268)</sup>

---

266) “바티칸공의회.”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1108](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1108).

267) “세속화.”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1897](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1897) “세속화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외국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독일어의 경우 ‘Profanisierung’과 ‘Sakularisierung’이라는 말이 있고,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쓰이는 말로 ‘Sakularisation’이 있다. 그런데 ‘Sakularisierung’은 반드시 신앙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속주의’(世俗主義) 즉 ‘Sakularismus’와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속’을 ‘profan’과 ‘sakular’로 구별한다. … 어쨌든 세속화는 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고 인간 역사 창조에 동참케 한다. … 세속주의는 하나의 종교적인 구실을 하기 때문에 ‘세속화’라는 말과는 반대의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가톨릭 대백과사전』).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미국의 개신교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세속화의 개념이 보편화 되었고 친숙해졌다. 1960년대에 개신교 신학계에서도 세속화에 부응하는 ‘세속화 신학’이 등장하였다. 세속화 신학을 주장한 사람들은 주로 현대주의자들이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세속화 신학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세속화 신학이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과 신앙을 무너뜨렸다”고 보았다.<sup>269)</sup>

1963년에 로빈슨(John A. T. Robinson)의 『신에게 솔직히』(Honest to God)가 출간되었는데, 역사적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이 현대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현대인에게 부합하는 새로운 신(神)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신을 “위에 있는 하나님”(God up there)이나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God out there)<sup>270)</sup>으로 볼 것이 아니라, 티리히(Paul Tillich)의 실존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존재의 토대’(the ground of our being)<sup>271)</sup>가 되는 하나님을 주장하였다.

1963년에 반 뷰렌(Paul Van Buren)은 『복음의 세속적 의미』(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현대인의 언어로 재해석하였다. 반 뷰렌은 기독교 복음을 세속적으로 해석할 때 역사적 기독교의 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세속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신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대에는 역사적 신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

---

268)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 446.

269) 박아론, 『현대신학은 어디로?』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pp. 155.

270) John A. T. Robinson. *Honest to God* (London: SCM Press, 1963), pp. 11-13.

271) Ibid., p. 45.

### 3. 세속주의의 영향

일이라고 보았다.<sup>272)</sup> 반 뷰렌 역시 실존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신앙을 지식이 아닌 일종의 태도로 보았다.<sup>273)</sup> 신복음주의자였던 칼 헨리는 반 뷰렌의 “세속화된 기독교”가 다른 실존주의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였다.<sup>274)</sup>

세속화 신학의 또 다른 대변인은 하비 콕스(Harvey Cox)였다. 1965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세속도시』(The Secular City)는 신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sup>275)</sup> 콕스의 세속도시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서 거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콕스는 세속화(secularization)를 종교가 필요치 않는 성인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시화(urbanization)를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인류의 문화사를 부족문화시대(the age of tribal culture), 소도시문화시대(the age of town culture), 그리고 기술대도시 문화시대(the age of technopolitan culture)의 셋으로 구분했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화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의 형태를 의미했으며, 세속도시는 기술대도시문화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다.<sup>276)</sup> 그는 세속화와 세속주의를 구분하였다. 그는 세속화를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았지만, 반면에 세속주의는 비성경적인 사상체계

---

272) Paul Van Buren. *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 (London: SCM Press, 1963), pp. 197-198.

273) Ibid., pp. 96-97.

274) Carl F. H. Henry, *Frontiers In Modern Theology* (Chicago: Moody Press, 1964), p. 149.

275) 콕스의 『세속도시』에 관한 찬반(贊反) 논문들은 Daniel Callahan, ed., *The Secular City Deb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6)에서 볼 수 있다.

276) Harvey Cox. *The Secular City* (London: SCM Press, 1965), pp. 2-6.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로 보았다.<sup>277)</sup>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속도시와 그 안에서의 삶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78)</sup> 콕스는 이 세속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을 위한 신학으로 ‘사회변화의 신학’(theology of social change)을 주장하였다.<sup>279)</sup> 이 사회변화의 신학은 그 강조점에 있어서 이전에 유행했던 ‘사회복음’(Social Gospel)과 같았다.

세속화 논쟁은 본질에 있어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현대주의 논쟁과 같은 것이었지만 현대주의 논쟁에 비해 당시의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세속화 논쟁은 단지 기독교 내에서, 특히 신학계에서의 논쟁으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세속화 논쟁이 세속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세속화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이미 충분히 세속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세속화 논쟁에 별 충격을 받지 않았다. 세속화 신학은 세속주의화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세속주의화 된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상에 적응할까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신학자들은 세속화와 세속주의를 구분하였지만, 현대인들은 이미 세속주의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구분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당시의 교회들은 세속주의화된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1920년대에 미국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회에 나타났던 ‘성공의 복음’이 현대의 교회 내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시는 더 커졌고 더 세속주의화 되었다. 세속주의가 교회 내에 침투하여 교회 자체가 세속주의를 찬양하게 되었다. 성공의 복음은 많은

---

277) Ibid., pp. 20-21.

278) Ibid., pp. 23-32.

279) Ibid., p. 105.

### 3. 세속주의의 영향

교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복음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현대교회 내에서는 세속화와 세속주의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sup>280)</sup>

세속주의는 미국의 교회에서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장로교회도 이러한 세속주의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했다. 미국장로교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장로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수는 1940년 269만 1천명, 1963년 4백만명, 1980년 336만 2천명, 1988년 293만명,<sup>281)</sup> 1998년 258만 8천명,<sup>282)</sup> 2010년 207만 7천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장로교회 소속 교인들의 수는 현재 미국 총인구의 1%미만이며, 교단 사상 최다를 이룬 1965년의 425만명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세속주의 문제와는 별도로 미국장로교회의 현대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2년간 40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 보수적인 교단으로 옮겨갔다.<sup>283)</sup> 이 교회들의 교단 탈퇴는 교단 내에서 동성애자 성직 안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 주류 교단들 대부분은 동성애자를 교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 허용 문제에 있어서는 교단별로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미국장로교회는 1997년 이래로 동성애자에게 성직자 안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오다가, 지난 2010년 7월 10일 폐회한 제219회 총회에서 성직자 요건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정절’과 독신으로서의 ‘순결’을 명시해 놓은 ‘정절과 순결 조항

---

280) John F. MacArthur, Jr. *Ashamed of the Gospel: When the Church Becomes Like the World* (Wheaton: Crossway Books, 1993), pp. xi-xx.

281) 류대영, 『미국종교사』, p. 429.

282) “교인수 감소폭 계속 완화,” 『기독신보』, 1999년 5월 26일.

283) “PCUSA 동성애자 성직안수 금지조항 또 삭제” [http://www.kseattle.com/?document\\_srl=292881](http://www.kseattle.com/?document_srl=292881)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G-6.0106)<sup>284)</sup>을 헌법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절과 순결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세 번 더 있었으나, 모두 보수적인 노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sup>285)</sup>

미국 주류 교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교회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장로교회를 비롯하여 미국의 주류 기독교계가 베트남전쟁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초부터였다. 기독교계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베트남 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남베트남에 친미정부를 세우려는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이 미국의 종교인들의 반전운동을 주도했다. 미국교회협의회는 1965년 10월의 세인트루이스 모임에서 민족해방 전선(Vietcong)을 포함하여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상할 것과 폭격 목표를 군사기지로 제한할 것 등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개신교 목회자들을 조사한 1970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지역 목사들 가운데 근본주의자들은 3%대 76%의 비율로 베트남전쟁으로부터의 완전 철수보다 확전을 지지했다. 보수주의자들(12%대 50%)과 신정통주의자들(15%대 30%)의 확전지지 비율은 그보다 낮았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베트남전쟁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확전을 통한 승리를 원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교회협의회에 포함된 주류 교단들에서 반전 태도가 높았으며, 보수적

---

284) G-6.0106 은사와 요구 “b.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와 취임 또는 안수나 취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285) “美 주류 교단들, 동성애자 성직 임명 두고 견해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9685>.

### 3. 세속주의의 영향

인 교회의 경우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들이 베트남전쟁을 지지하는 성향이 더 높았다.<sup>286)</sup>

#### (2) 미국장로교회와 1967년 신앙고백

1936년 근본주의자들이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해 미국장로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후 미국장로교회도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다. 1936년 당시의 미국장로교회는 현대주의자들과 포용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이 결합되어 있었으나 점차 현대주의자들 쪽으로 세력의 추가 기울었다. 그 명확한 증거가 1967년에 채택된 새로운 신앙고백이다. 한국에서도 이로 인해 「1967년 신앙고백」 논쟁이 벌어졌다.<sup>287)</sup> 이 새로운 신앙고백은 당시 팽배해 있던 세속화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1956년 미국장로교회는 텍사스의 아마릴로(Amarillo) 노회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총회는 이 일을 다루고자 위원회를 임명했는데, 위원회는 ‘현시대에 맞는 간략한 신앙 성명서’(a brief contemporary statement

---

286) 류대영, 『미국종교사』, pp. 475-479.

287) “1967년도 신앙고백논쟁,” <http://chportal.christiantoday.co.kr>. 1967년 미국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새로운 신앙고백에 대한 한국교회의 찬반 여론. 당시 미국연합장로교회와 깊은 선교적 유대를 맺고 있던 한국 교회는 이 신앙고백선언과 그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박형룡, 한철하, 김의환 교수 등 보수계열의 신학자들은 이 신앙고백이 정통적 기독교의 교회 신조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공박하고, 지나친 사회적 관심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한 반면, 서남동, 윤성범 교수 등 보다 진보적 입장의 신학자들은 기독교회가 한 시대 안에서 새롭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윤리적 표준으로서의 새로운 신조를 환영하였다. 이에 이종성 같은 이는 중도적 입장에 서서 본질적 신앙내용에 대한 진술부족을 아쉬워하면서도 교회의 시대적 사명 확인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거론하였다.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of faith)를 준비하여 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1958년 총회는 이 일을 위하여 에드워드 도웨이(Edward A. Dowey)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일명 도웨이 위원회는 일 년 뒤인 1959년에 간략한 신앙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제한된 입장을 풀어 주어 더 넓은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0년대의 영국교회의 역사적 상황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개혁교회의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었다.<sup>288)</sup> 1965년 총회는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 후 연구를 위해 개정된 초안을 각 교회로 보냈다. 당회, 회중, 그리고 노회는 변화와 확장을 제안하였다. 그에 답하여, 새로 임명된 15인 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었다. 1966년 총회에서는 이 초안을 검토한 후 수용하였다. 최종 비준(批准)을 위하여 노회로 이것을 전송하였다. 폭넓은 토의를 거친 후 노회의 90% 이상이 이 초안에 찬성하였다. 1967년 총회에서 이것이 최종 채택되었다.<sup>289)</sup>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동안 약간의 개정이 있기는 했지만 장로교 300여년의 역사 동안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장로교회는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이종성은 미국장로교회가 기존의 신앙고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sup>290)</sup> 시대가 새로운 신앙고백을 요청하고 있었고, 또

---

288) 한철하, “1967년 신앙고백과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노선,” 홍치모, 『영미장로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pp. 342-347.

289)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4), p. 252.

### 3. 세속주의의 영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백의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부응하여 미국장로교회는 「1967년 신앙고백」을 만들었다.<sup>291)</sup> 문제는 신경이나 신앙고백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장로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신경과 신앙고백이 제시된 진리인 성경의 요약으로서, 혹은 진리의 체계로서, 혹은 신앙의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67년 신앙고백」은 신경이나 신앙고백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신경이나 신앙고백은 더 이상 제시된 절대적인 진리와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감각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sup>292)</sup> 「1967년 신앙고백」은 하나의 신앙고백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앙고백을 만드는 것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sup>293)</sup>

「1967년 신앙고백」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고린도후서 5:19)라는 성경구절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신앙고백의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일”(God’s Work of Reconciliation)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단락인 “화목의 사역”(Ministry of Reconciliation)은 교회의 사명과 준비로 구분된다. 마지막 단락인 “화목의 성취”(The Fulfillment of Reconciliation)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안에 있는 교회의 소망을 확인한다.

---

290) 이종성,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한국 교회,” 『기독교사상』, 제271호 (1981), p. 33.

291)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 253.

292) 한철하, 「1967년 신앙고백과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노선」, pp. 356-357.

293) 이종성,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한국 교회」, pp. 33-34.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1967년 신앙고백」은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성경학의 발달에 응하여, 이 신앙고백은 교회에게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것”(9.09)을 요청한다. 이 신앙고백은 특별히 인종차별, 민족주의적인 오만, 그리고 가족과 계층의 충돌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약속된 재림을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위한 본보기로 인식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을 요청한다.<sup>294)</sup> 이에 대하여 한철하는 「1967년 신앙고백」이 화목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통적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화목”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신 자신에게 화목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화해를 인식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7년 신앙고백」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의 관계에 들어가는 일보다 인간 사이의 “화목”과 도덕적 문제가 주요점이 되어있다고 분석했다.<sup>295)</sup>

「1967년 신앙고백」의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치중하였는데,<sup>296)</sup> 이 신앙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그 모호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명확한 교리들을 침묵의 영역에 남겨두었다.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

294)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 252.

295) 한철하, “1967년 신앙고백과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노선,” p. 349.

296)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 254.

### 3. 세속주의의 영향

육체적인 부활, 재림에 관한 교리들은 축소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강조되는 것은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뿐이다.<sup>297)</sup>

「1967년 신앙고백」에서 가장 자세히 살펴야 할 부분이 바로 성경에 관한 부분이다. 이 신앙고백의 작성을 주도했던 위원회는 이 신앙고백이 특별히 “철저히 영감설에 근거하여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수정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sup>298)</sup> 「1967년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과 강조하는 바가 많이 다르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sup>299)</sup>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sup>300)</sup> 그러나 「1967년 신앙고백」은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문자(Word)에서 소문자(word)로 바뀐 것이다.<sup>301)</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967년 신앙고백」이 더 이상

---

297) Carl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p. 49-59.

298) 간하배, “1967년도 신앙고백의 성경관,” 『신학지남』, 제138호 (1967), p. 43.

299) WCF 1. 2., “Under the name of Holy Scripture, or the Word of God written, are now contained all the book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300) WLC. Q. 3., “What is the Word of God? A.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301)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 257. “하나님의 하나의 완전한 계시(revelation)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에 대하여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웨스트민스터에 진술된 성경에 대한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1967년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계시”(revelation)로 진술하는 반면에 성경은 “증거”(witness)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증거가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람의 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67년 신앙고백」에 의하면 성경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sup>302)</sup> 「1967년 신앙고백」은 성경의 해석과 성경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신앙고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7년 신앙고백」은 성경이 화해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에 대한 그것의 증거의 빛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 하에 주어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된 언어, 사상의 형태들, 그리고 기록된 장소들과 시기들의 문학적 양식들에 의해 조건 지워진 사람들의 말들이다. 그것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삶, 역사, 그리고 우주의 견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학적이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화적 환경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께서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 문화의 형태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실 것을 확신한다.<sup>303)</sup>

---

유일하고 권위 있는 증거를 한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순종된다. 성경은 다른 것들 가운데 있는 증거가 아니라, 절대적인 증거(witness)이다. 교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책들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과 순종이 자라게 되며 규정된다(9. 27).”

302) 간하배, “1967년도 신앙고백의 성경관,” pp. 46-57.

303)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 257.

### 3. 세속주의의 영향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 해석의 정확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며,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더욱 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sup>304)</sup> 「1967년 신앙고백」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충돌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1967년의 교회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1967년 신앙고백」의 개념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05)</sup> 성경에 대한 또 다른 「1967년 신앙고백」의 중요한 진술은 “성령의 인도 하에 주어진 성경은 그림에도 불구하고”라는 진술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sup>306)</sup>라고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 진술한다. 그러나 「1967년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given by inspiration of God) 것을 “성령의 인도 하에 주어진”(giv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으로 변경하였다. 거기에서 “그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를 첨부함으로써 성령의 인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성경은 결국 사람들의 말들로 확증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성경의 무오성을 떠나 유오성을 주장하는 것이다.<sup>307)</sup>

---

304) WCF 1. 9., "The infallible rule of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the Scripture itself; and therefore, when there is a question about the true and full sense of any scripture (which is not manifold, but one), it may be searched and known by other places that speak more clearly."

305)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 35.

306) WCF 1. 2., "All which a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to be the rule of faith and life."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장로교회의 「1967년 신앙고백」을 현대주의적 신앙고백으로 보고 있으며,<sup>308)</sup> 기독교의 왜곡이라고 간주하였다.<sup>309)</sup> 근본주의자 김효성은 「1967년 신앙고백」이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았다.<sup>310)</sup> 미국장로교회의 헌법은 『신앙고백의 책』(Book of Confessions)을 채택했는데, 이 책에는 「1967년 신앙고백」과 더불어 「니케아신경」(Nicene Creed, 325), 「사도신경」(Apostles' Creed, 390),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cots Confession, 1560), 「하에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1563), 「제2 스위스 신앙고백」(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Westminster Confession and Catechisms, 1646), 그리고 「바르멘 신학선언」(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 1934)이 포함되어 있다.<sup>311)</sup> 이 중에서 「1967년 신앙고백」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르멘 신학선언」이었다. 다른 모든 신경과 신앙고백들은 정통적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있는 것들이었지만, 「바르멘 신학선언」은 개혁주의의 전통이 아닌 신정통주의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바르멘 신학선언」과 「1967년 신앙고백」의 공통점이라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있었다.<sup>312)</sup>

---

307)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p. 35-48.

308) 홍치모, “美國에 있어서 教會史 研究와 敍述의 變遷: 1888-1998,” 『신학지남』, 제258호 (1999), p. 121.

309) 한철하, “1967년 신앙고백과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노선,” p. 341.

310)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57.

311)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p. 252-253.

312) 한철하, “1967년 신앙고백과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신앙노선,” pp.

### 3. 세속주의의 영향

「1967년 신앙고백」의 서문은 그 신앙고백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sup>313)</sup> 매킨타이어 역시 여기에 사용된 “일치”와 “화목”이라는 말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두 용어들을 「어번 선언서」와 연관 지어서 논평했다. 그는 일치, 자유, 화목의 세 용어는 과거에 「어번 선언서」를 지지하던 현대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던 말이며, 현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친숙한 용어라고 주장하였다.<sup>314)</sup> 「1967년 신앙고백」의 신학이 「어번 선언서」의 신학과 유사하다는 것은 근본주의자들만의 주장만은 아니다. 현대주의자인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 니콜스(John H. Nichols) 교수는 새 신앙고백이 근본주의의 5개 신조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번 선언서」보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더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어번 선언서」 당시에 소수의 견해로 인정되었던 것이 1967년 즈음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sup>315)</sup> 매킨타이어는 미국장로교회에 의해 「1967년 신앙고백」이 채택되기 전에 미리 그 신앙고백을 역사적, 교리적 맥락에서 자세히 분석한 후 그에 대해 비평하는 책을 1967년 1월에 출간하였다. 매킨타이어는 미국장로교회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그 책의 이름을 “교회의 죽음”(The Death of

---

348-352.

313)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p. 253. “1967년 신앙고백의 목적은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고백과 사명에 있어서 일치를 교회에 호소하는 데 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일과 화목의 사명을 위해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부르신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복음의 핵심이었다. 우리 세대는 그리스도 안의 화목을 특별히 필요로 하고 있다.”

314)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p. 167-172.

315) John H. Nichols, “A New Presbyterian Confessions of Faith” in *Mccormick Seminary Quarterly* (January 1966). p. 166.

A Church)이라고 붙였다.<sup>316)</sup>

1920년대에 미국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던 현대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1967년에 이르러 현대주의자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현대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교회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부분을 아예 폐기하였다. 그들이 헌법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 외에 다른 신경들과 신앙고백들을 채택한 것은 다른 신경들과 신앙고백들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처럼 장로교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리적인 표준은 신앙과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여전히 장로교의 체제를 따르고 있지만, 「1967년 신앙고백」을 채택한 이 후로 그 내용면에서는 장로교 전통과 거의 완전히 결별한 것이다.

### (3) 문화전쟁

미국에서의 문화전쟁(Culture Wars)은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sup>317)</sup> 1960년대의 사회의 부정적인 변화들인 높은 이혼율과 범죄율, 합법화된 낙태 등에 반발하여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들이 나서서 미국사회와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

316) McIntire, *The Death of A Church*, pp. 7-8. “1967년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장로교회는 전혀 다른 단체가 될 것이다. 그 교회의 기초들도 변화될 것이다. ... 한 때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개혁적이고 칼뱅주의적인 교회가 막다른 길에 도달해 있다. 더 이상 그 교회를 참되고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언어로 고백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 그 길의 마지막 전환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은 어떤 진지한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그들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이제 그들 자신의 교리를 세웠기 때문에 현대주의자와 근본주의자 사이의 논쟁이라고 불리던 것도 이 교회의 범위 내에서는 영원히 끝이 났다.”

317) “Culture War,” [http://en.wikipedia.org/wiki/Culture\\_war](http://en.wikipedia.org/wiki/Culture_war)

### 3. 세속주의의 영향

주장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우파가 형성되었다.<sup>318)</sup> 기독교 우파는 흔히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sup>319)</sup> 이것은 근본주의 역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기독교 우파는 근본주의가 아닌 신복음주의와 관련이 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적인 세력을 필요로 했으며, 공화당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화전쟁에서의 승리가 대중을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문화전쟁에 적극 참여하였다.<sup>320)</sup>

미국에서 낙태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낙태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미국사회는 둘로 나누어져서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까지 미국 독립 이전부터 효력을 가지고 있던 관습법의 영향으로 각 주에서 낙태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1959년 미국법연구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에서 낙태자유화법 초안을 내놓으면서 낙태 이슈가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의 영향으로 1967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주에서 낙태 관련법을 수정하기 시작했다.<sup>321)</sup> 낙태 논쟁의 역사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언급되

---

318) 이소영, “미국 사회적 보수주의의 가치와 유권자 성향: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2008), p. 553.

319) 이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참여,” 『사회와 철학』, 제10호 (2005), p. 260.

320) Clip Berlet and Margaret Quigley, “미국 우파들의 문화전쟁: 신권 정치와 백인 우월주의,” 『문화과학』, 15호 (1998), p. 219.

321) 김민정, “미국 낙태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2010), p. 266.

#### IV. 20세기 후기 미국장로교에서 근본주의와 세속주의, 1948-1980

는 사건이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1973)이다. 1970년 당시 텍사스 주법은 모든 낙태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텍사스 중에 살던 제인 로(Jane Roe)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에서 블랙먼(Harry Blackmun) 대법관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했다.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당시의 사회적인 흐름이었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주 또는 의회 입법 과정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 우파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세력은 1970년 후반부터 이러한 분위기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기독교 우파 조직인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와 “기독교 연맹”(Christian Coalition)이 결성되었다.<sup>322)</sup> 개신교인들의 경우 전체 미국 유권자나 남부 유권자들과는 반대로 1970년대와 비교해서 1980년대 이후에 낙태에 반대하는 비율이 급증하였다. 1970년대 말 이후 기독교 우파의 정치적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 기독교 우파의 정치세력화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1980년 이후 개신교인들의 낙태반대비율이 1970년대에 비해 상승한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변화이다.<sup>323)</sup>

기독교 우파는 “도덕적 다수”와 “기독교 연맹”을 중심으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5년 만에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된 이후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생명존중, 기독교 신앙, 전통적 질서와 도덕

---

322) 최규진,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마르크스21』, 제6호 (2010), pp. 84-85.

323) 이소영, “미국 사회적 보수주의의 가치와 유권자 성향: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p. 558.

### 3. 세속주의의 영향

등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였다. 기독교 우파는 2000년, 2004년의 부시 당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보수적 싱크-탱크(think tank)인 신보수주의와 동맹을 형성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예배, 가족, 공동체 자선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의 최대 이슈는 동성결혼, 낙태, 불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사회정책상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가치관의 문제였는데, 이 배경에는 기독교 우파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 기독교 우파는 미국의 보수파 최대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는데, 그 규모는 핵심 역량 2십만 명, 기독교 우파의 지지자 약 천5백만 명, 낙태와 같은 특수한 이슈의 동조자 약 3천5백만 명 정도이다.<sup>324)</sup> 대체로 보수주의적인 성향의 교단들은 낙태를 가장 부도덕한 살인행위로 여기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현대주의화된 주류 교단들의 경우 낙태금지법이 있었을 때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나 낙태가 교회와 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주류 교단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떤 일관된 입장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낙태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이다. 이 주류 교단에 속한 교인들의 경우 교단 차원보다는 각 교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낙태문제를 정하고 있다.<sup>325)</sup> 신복음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문화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324) 이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참여,” pp. 253-254.

325) Ibid., pp. 507-509.

## V. 결 론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공격하였던 현대주의의 공격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 개신교 내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주의가 현대사조의 흐름에 맞게 기독교를 적응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움직임이었다면, 근본주의는 그 흐름을 거부하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려 했던 수동적이고 배타적인 움직임이었다. 근본주의는 성경적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지키려는 태도이며, 근본주의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근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기독교와 같은 의미이며,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근본주의 논쟁은 1920년대에 미국장로교회 내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시기의 근본주의 논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교리적이었다. 당시 미국장로교회 내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졌던 두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교리적인 면에서 엄격했던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구학과’는 근본주의 진영을 후원했으며,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던 뉴잉글랜드계통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신학과’는 현대주의 진영을 후원했다.

근본주의 논쟁은 당시의 사회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로 미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약화되었다. 미국장로교회 내에도 포용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근본주의자들에게 동의했지만, 교리적인 면보다는 교회의 일치에 더 중요시하였다. 포용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적인 성향이 교회의 일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현대주의자들과 공조하면서 1930년대 중반에 근본주의자들

## V. 결 론

을 미국장로교회에서 축출하였다.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장로교회를 떠나 그들만의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장로교독립선교부’ 그리고 ‘정통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교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이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한 지 1년 후인 1937년에 ‘장로교독립선교부’의 운영에 관한 문제, 술과 담배에 관한 문제, ‘전천년주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단과 신학교의 행정권에 관한 불만 등의 이유로 인해 정통장로교회는 다시 둘로 분열되었다. 정통장로교회를 떠난 근본주의자들은 ‘장로교독립선교부’를 새롭게 개편하였으며, ‘웨이스 신학교’와 ‘성경장로교회’라는 교단을 설립하였다. 성경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후에 전투적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은 미국 내보다 대외활동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들은 현대주의 성향을 표명하던 ‘세계교회협의회’에 대립하여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를 설립하고 현대주의자들과의 전투를 지속했으며, 냉전(冷戰)시대에 공산주의에 적대하며 반공(反共) 노선을 견지했다. 그러나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들 내부에서 분열을 거듭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1948년에 전투적 근본주의자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신복음주의’가 등장했다. 전투적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 내의 다른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반면, 신복음주의자들은 포용적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사회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초기 신복음주의자들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젊은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세력과 공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60년대에 이르러 ‘기독교 우파’의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 V. 결 론

1980년에 미국에서 공화당의 레이건이 집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움직임이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개신교 내에서는 세속화 논쟁이 진행되었다. 세속화 논쟁의 논점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적응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 논쟁은 1920년대의 현대주의 논쟁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현대주의자들은 현대의 도시화에 적합한 기독교의 개념을 재설정하려고 하였는데, 1960년대 세속화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근본주의자들의 반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단지 신복음주의자들 중의 일부가 세속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1930년대에 근본주의자들을 미국장로교회로부터 축출하고 교단을 장악했던 현대주의자들은 1960년대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 「1967년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장로교회 내에서 현대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1967년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정체성을 더 이상 교리적인 면에서 찾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1967년 신앙고백」은 미국장로교회의 현대성과 세속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근본주의의 몇 가지 특성이 명백해졌다. 첫째, 근본주의 논쟁의 핵심은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에 관한 것이었다. 근본주의자들은 현대에 적응하려는 현대주의의 시도를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을 보존하기 위해 현대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근본주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근본주의자들과 포용적 보수주의자들에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 교권 쟁탈전의 양상을 띠었음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근본주의 논쟁이 그 본질에 있어서 교리논쟁이었다는 점

## V. 결 론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근본주의는 강한 분리주의적 성향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유로 분리주의적인 특성을 견지하였다. 근본주의는 현대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을 보호하고자 현대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로 근본주의는 사회에 대한 접촉점(contact point)을 잃어버렸다. 사회복음이 등장했을 때 사회복음주의자들이 현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자 근본주의자들은 사회복음을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사회복음이 지향하는 모든 긍정적인 가치를 부정했다. 근본주의의 이러한 분리주의적인 성향은 근본주의자들의 행동양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독교 우파’ 현상은 전투적 근본주의 세력과는 무관하다. 기독교 우파는 신복음주의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세력화한 기독교 우파를 근본주의 성향의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은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이다.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의 특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 우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 근본주의의 전투적 성향과 폭력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키려는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위해 그들의 전투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들은 20세기 초기에 현대주의자들과 논쟁하였으며,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했다. 근본주의자들은 한국전쟁을 공산주의와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근본주의자들은 타협적이고 중립적인 성향의 신복음주의를 배척했으며, 심지어는 근본주의자들 내부에서

## V. 결 론

도 투쟁과 분열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전투적인 성향이 꼭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전투적 성향은 주로 그들의 저술과 설교에 한정된 것이었다.

여기서 근본주의의 장차 진로에 대해 전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근본주의는 분리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외연을 확대하기 어려워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폐쇄성으로 인해 고립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근본주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언제나 소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속화가 상당히 진행된 사회 속에서 근본주의는 더욱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근본주의는 현대의 흐름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저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려는 현대주의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라도 그 근본적인 가치들이 위협받게 되면 그것들을 지키기 전투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과 가치들은 근본주의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근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독선으로 흐를 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에 한정된 것이다. 이 논문은 근본주의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근본주의적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개신교 근본주의와 다른 종교의 근본주의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본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근본주의가 현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없는지는 근본주의 연구자들이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 Brookes, James H. "Niagara Conference," *The Truth* 15 (1889).
- \_\_\_\_\_. "Order of Exercises of Niagara Bible Conference, July 12-18, 1984," *The Truth* 20 (1894).
- Erdman, Charles R. "The Church and Socialism," in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volume IV. Edited by R. A. Torrey, A. C. Dixon and Oth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Fosdick, Herry Emerson. "Shall the Fundamentalists Win?" *Christian Work* 102 (June 10, 1922)
- \_\_\_\_\_. *Answers to Real Problems: Harry Emerson Fosdick Speaks To Our Time Selected Sermons of Harry Emerson Fosdick* Edited by Mark E. Yurs. Eugene: Wipe & Stock, 2008.
- Keltt, Guy S. ed. *Minut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1706-1788*.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1976.
- Macartney, Clarence E. "Shall Unbelief Win? An Answer to Dr. Fosdick," 2 parts, *The Presbyterian*, July 13 & 20, 1922.
- Machen, J. Gresham. "Jesus and Paul," in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ed. the Members of the Faculty of th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12.
- \_\_\_\_\_.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23.
- \_\_\_\_\_. *God Transcendent*.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 \_\_\_\_\_. *Selected Shorter Writings*. Edited by D. G. Hart.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4.
- \_\_\_\_\_. *The Christian View of Ma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9.
- \_\_\_\_\_.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Repri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25.

## 참고문헌

- \_\_\_\_\_. *The Virgin Birth of Chris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30.
- \_\_\_\_\_. *What is Faith?* Reprint,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 MacRae, Allan A. "The 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http://www.carlmcintire.org/information-macrae.php>.
- McIntire, Carl. "A Critiqu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http://www.carlmcintire.org/speeches-critique.php>.
- \_\_\_\_\_. "Bible Presbyterian Church I." <http://www.carlmcintire.org/information-bpci.php>.
- \_\_\_\_\_. "Ecumenical Evangelism" <http://www.carlmcintire.org/t-sermons-ecumenical.php>.
- \_\_\_\_\_. "ICCC Petitions WCC to Remove Communist Agents From Membership." <http://www.carlmcintire.org/newspapers-christiannews-911007.php>.
- \_\_\_\_\_. "Marx of Christ in the Churches?" <http://www.carlmcintire.org/speeches-marx.php>.
- \_\_\_\_\_. "Professing Our Faith." <http://www.carlmcintire.org/1957/index.htm>.
- \_\_\_\_\_. "The 20th Century Apostasy." <http://www.carlmcintire.org/speeches-apostasy.php>.
- \_\_\_\_\_. "The Life and Ministry of Carl McIntire."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EdReese.php>.
- \_\_\_\_\_.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undamentalism and New Evangelicalism?"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fundamentalismVneuevangelicalism.php>.
- \_\_\_\_\_.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xism and Christianity?"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mVc.php>.
- \_\_\_\_\_.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nd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accVnccc.php>.
- \_\_\_\_\_.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WccVicc.php>.

## 참고문헌

- \_\_\_\_\_. "Why Christians Should Fight Communism." <http://www.carlmcintire.org/booklets-fightcommunism.php>.
- \_\_\_\_\_. *McIntire Maxims* edited by Timothy Tow.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1999.
- \_\_\_\_\_. *Modern Tower of Babel*.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49.
- \_\_\_\_\_. *Red China's Use of Religion to Make the U.S. Communist*. Collingswood: 20th Century Reformation Hour, 1979.
- \_\_\_\_\_. *Russian Orthodox Church: How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s Promoting Communism Throughout the Whole World*. Collingswood: 20th Century Reformation Hour, 1963.
- \_\_\_\_\_. *Servants of Apostasy*.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55.
- \_\_\_\_\_. *The Death of A Church*.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67.
- \_\_\_\_\_. *The Epistle of the Apostasy*.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58.
- \_\_\_\_\_. *Twentieth Century Reformation*. Collingswood: Christian Beacon Press, 1945.
- Quack, K. C. *The McIntire Memorial: Carl McIntire 1906-2002*. Seoul: Truth & Freedom Publishing Co., 2005.
-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I The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4.
- VanderLann, Eldred C. *Fundamentalism versus Modernism*. New Work: The H. W. Wilson Company, 1925.

## (2) 2차 사료

- A Lover of Truth. *Why Bother With The Bible?: Fundamentalism Versus Modernism*. Edinburgh: Lindsay & Co., 1955.
- Ashbrook, John E. *New Neutralism II: Exposing the Gray of Compromise*. Painesville: Here I Stand Books, 1992.
- Beale, David O. *In Pursuit of Purity: American Fundamentalism Since 1850*. Greenville: Unusual Publications, 1986.

## 참고문헌

- Berlet, Clip and Margaret Quigley, “미국 우파들의 문화전쟁: 신권정치와 백인 우월주의,” 『문화과학』, 15호 (1998).
- Brown, John. *The English Puritans: The rise and Fall of the Puritan Movement*. Fearn: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1998.
- Buswell, James Oliver.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2.
-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 Callahan, Daniel. ed. *The Secular City Deb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6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Cross, F. L. and E. A. Livingstone.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Calhoun, David B. *Princeton Seminary: The Majestic Testimony 1869-1929*.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6.
- Dennison, Charles G. & Richard C. Gamble. ed. *Pressing Toward the Mark: Essays Commemorating Fifty Years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36-1986*. Philadelphia: The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86.
- Ebert, Daniel J. III. *Will Our Sons Defend The Faith?*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1994.
- Ellingsen, Mark. *The Evangelical Movement: Growth, Impact, Controversy, Dialog*.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 Elliott, Paul M. *Christianity and Neo-Liberalism: The Spiritual Crisis in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and Beyond*. Unicoi: The Trinity Foundation, 2005.
- Ferguson, Paul. *Church History II*.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2008.
- Goodchild, Frank. *Twenty Questions: What, Why and How?* n.p.: General Committee on Fundamentalism Within the Northern Baptist Convention, 1924.
- Harden, Margaret G. *A Brief History of the Bible Presbyterian Church and Its Agencies*. privately published, 1966.

## 참고문헌

- Hart, D. G. and John Muether, *A Brief History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Philadelphia: The Committee on Church Education and The Committee for the Historian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95.
- Hart, D. G. and Mark A. Noll. *Dictionary of the Presbyterian & Reformed Tradition in America*.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9.
- Cox, Harvey. *The Secular City*. London: SCM Press, 1965.
- Hebly, J. A. *The Russians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Belfast: Christian Journals Limited, 1978.
- Henry, Carl F. H. *Frontiers In Modern Theology*. Chicago: Moody Press, 1964.
- Heron, James. *A Short History of Puritanism--A Handbook For Guilds And Bible Classes*. Edinburgh: T. & T. Clark, 1908.
- Hocking, William Ernest.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 Hoffecker, W. Andrew. "Benjamin B. Warfield" in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A History of Its Modern Development* Edited by David F. Well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 Hutchison, William R. *Errand to the World: American Protestant Thought and Foreign Miss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Keyser, Leander S. *The Conflict of Fundamentalism and Modernism*. Burlington: The Lutheran Literary board, 1926.
- Khoo, Jeffrey.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in Reformed Theology: The Contribution of J. O. Buswell to the Millennial Debate" i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4/4 (December 2001).
- \_\_\_\_\_. *Biblical Separation: Doctrine of Church Purification and Preservation*.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1999.
- \_\_\_\_\_. *Dispensationalism and Covenant Theology*.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10.
- \_\_\_\_\_. *Fundamentals of the Christian Faith: A Reformed and Pre-millennial Study of Christian Basics*.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5.
- \_\_\_\_\_. *Kept Pure in All Ages: Recapturing the Authorized Version*

## 참고문헌

- and the Doctrine of Providential Preservation*.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Press. 2001.
- Lake, Kirsopp. *The Religion of Yesterday and Tomorrow*. Boston: Houghton Mifflin, 1925.
- Latourette, Kenneth Scott. 『기독교사(하)』, 윤두혁 역, 생명의말씀사, 1989.
- Lefever, Ernest W. *Nairobi to Bancouer: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World 1975-87*. Washington: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1987.
- Lindsell, Harold. *The Battle For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Loetscher, Lefferts A.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 \_\_\_\_\_.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54.
- Longfield, Bradley J.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 Moder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MacArther, John F., Jr. *Ashamed of the Gospel: When the Church Becomes Like the World*. Wheaton: Crossway Books, 1993.
- Marsden, George M.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Reforming Fundamentalism: Fuller Seminary and the New Evangelical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7.
- \_\_\_\_\_.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Belmont: Wadsworth, 2001.
- \_\_\_\_\_. *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Masters, Peter. *Are We Fundamentalists?* London: Sword & Trowel, 1995.
- McGrath, Alister E.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박규태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9.
- Needham, George C. *The Spiritual Life*.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5.
- Nicholas, Stephen J., ed. *J. Gresham Machen's The Gospel in the Modern World and Other Short Writings*.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2005.

## 참고문헌

- Noll, Mark A.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Paisley, Ian R. K. *The 59 Revival: An Authentic History of the Great Ulster Awakening of 1859*. Belfast: Martyrs' Memorial Free Presbyterian Church, 1958.
- Pickering, Ernest D. *The Tragedy of Compromise: The Origin and Impact of the New Evangelicalism*. 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94.
- Quek, Suan Yew. *Contemporary Theology II*.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7.
- \_\_\_\_\_. *Contemporary Theology IV*.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3.
- Robinson, John A. T. *Honest to God*. North America: The Westminster Press, 1963.
- Samuel, David. *The End of the Ecumenical Movement*. Ramsgate, Kent: The Harrison Trust, 1990.
- Sandeen, Ernest. *Roots of Fundamen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Schaefer, Francis A.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4.
- Smylie, James H.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Louisville: Geneva Press, 1996.
- Stonehouse, Ned B.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7.
- Tow, Siang Hwa. *Anniversary of the Bible-Presbyterian Movement 1950-2010*. Singapore: Calvary Pandan Bible-Presbyterian Church, 2010.
- Tow, Timothy and Jeffrey Khoo, *Theology for Every Christian: A Systematic Theology in the Reformed and Premillennial Tradition of J Oliver Buswell*.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7.
- Tow, Timothy. *50 Years Building His Kingdom: Golden Jubilee Magazine 1950-2000*. Singapore: Life Bible-Presbyterian Church, 2000.
- \_\_\_\_\_. *Disciples of McIntire*.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 참고문헌

- 2002.
- \_\_\_\_\_. *Far Eastern Bible College Prospectus 2005-2009*.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5.
- \_\_\_\_\_. *John Sung My Teacher*. Singapore: Christian Life Publishers, 1985.
- \_\_\_\_\_. *The Singapore B-P Church Story*. Singapore: Life Book Center, 1995.
- \_\_\_\_\_. *The Story of My Bible-Presbyterian Faith*.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1999.
- \_\_\_\_\_. *What is Bible-Presbyterianism?* Singapore: Far Eastern Bible College, 2007.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Three volumes. Translated by George Musgrave Giger and Edited by James T Dennison Jr. Phillipsbru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 Company, 1992.
- Van Buren, Paul. *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 London: SCM Press. 1963.
- Warfield, Benjamin B.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House, 1948.
- Webber, Robert E. *The Secular Saint: A Case for Evangelical Social Responsibilit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 \_\_\_\_\_. *The Younger Evangelica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2.
- Wilfried, Röhlich.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분쟁』. 이혁배 역, 서울: 바이북스, 2007.
- 간하배. “1967년도 신앙고백의 성경관.” 『신학지남』. 제138호 (1967).
- \_\_\_\_\_. 『현대신학해설』.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0.
- 김기홍. “20세기초 미국 장로교 근본주의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성경과 신학』. (1984).
- \_\_\_\_\_. 『프린스톤 신학과 근본주의』. 아멘서적, 1992.
- 김길성. “메이첸의 후기 신학과 사상.” 『신학지남』. 제264호 (2000).
- \_\_\_\_\_. “박형룡 박사의 신학에 대한 이해와 평가.” 『신학지남』. 제281호 (2004).
- \_\_\_\_\_.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신학지남』. 제237호 (1993).

## 참고문헌

- \_\_\_\_\_.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제236호 (1993).
- \_\_\_\_\_. “프린스턴 신학교의 재편성과 종교다원주의의 수용.” 『신학지남』. 제242호 (1995).
- 김명혁.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변천과 그 동향.” 『신학지남』. 제 184호 (1979).
- 김민정. “미국 낙태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2010).
- 김선욱. “미국 개신교 신앙과 정치 실천의 변화: 장로교와 침례교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2집 (2005).
- 김영경. “이슬람 근본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 37집 (1998).
- 김의환. “WCC와 ICCC를 넘어서.” 『신학지남』. 제258호 (1999).
- \_\_\_\_\_. “구 Princeton 신학이 충신에 끼친 영향과 평가.” 『신학지남』. 제 267호 (2001).
- \_\_\_\_\_. “비판적 입장에서 본 WCC.” 『기독교사상』. 제121호 (1968).
- \_\_\_\_\_.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_\_\_\_\_. 『도전받는 보수신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서울: 옛신앙출판사, 2004.
- \_\_\_\_\_. 『현대교회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김홍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한국전쟁 성명과 공산권 교회들.”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4집 (2003).
- 류대영. 『미국종교사』. 서울: 청년사, 2007.
- 박아론. 『현대신학은 어디로?』.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 박용규.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 박형룡.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리와 교리.” 『신학지남』. 제141호 (1968).
- \_\_\_\_\_. “근본주의.” 『신학지남』. 제119호 (1960).
- \_\_\_\_\_. “현대신학의 동향.” 『신학지남』. 제132호 (1966).
- 박희석. “프린스턴 신학이 장로교에 끼친 영향.” 『신학지남』. 제292호 (2007).
- 손병호. 『장로교회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0.
- 신종철. 『한국장로교회와 근본주의』. 그리심, 2003.
-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연구』. 29 (2002).
- 오덕교. “구 프린스턴과 충신: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제267호

## 참고문헌

- (2001).
- 유재덕. 『기독교역사』. 경기도 안양: 브니엘, 2008.
- 이소영. “미국 사회적 보수주의의 가치와 유권자 성향: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2008).
- 이경재. “근본주의의 철학적/정신분석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vol 59 (2007).
- 이신철. “미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적 특징과 정치참여.” 『사회와 철학』. 제 10호 (2005).
-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종교연구』. 28 (2002).
- 이은선. “세계교회협의회회의 조직과 신학: 복음주의 관점에서의 비판.” 『성결교회와 신학』. (2009).
- 이재정. “해방후 한국교회 분열과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1995).
- 이종만. “한국전쟁기간 미국 복장로교회 한국선교부의 활동.” 『이화사학연구』. 제40집 (2010).
- 이종성.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한국 교회.” 『기독교사상』. 제 271호 (1981).
- 이진구.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형성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근대성 수용양태를 중심으로.” 『종교학 연구』. vol 13 (1994).
- 이찬수의, 『종교 근본주의: 비판과 대안』.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1.
-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정태식, 이철우. “탈레반을 통해본 예언자적 이슬람 개혁운동에 대한 일고찰.” 『담론』. 201 (2008).
- 주강식. 『한국교회와 ICCCK』. 고신대학교대학원, 2008.
- 최규진.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마르크스21』. 제6호 (2010).
- 허명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최근 동향 - 반공 혐오증, ‘인간화’ 선교, 소수자 인권운동.” 『성결교회와 신학』. 제21호 (2009).
- 홍 철. “20세기 미국근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고찰-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13집 (2007).
- \_\_\_\_\_.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현대 복음주의의 발흥과 분열의 역사적 고찰.” 『성경과 신학』. 제48호 (2008).
- \_\_\_\_\_. “메이첸의 생애와 사상.” 『역사신학논총』. 제9집 (2005).
- \_\_\_\_\_. “미국장로교회의 분열에 나타난 메이첸과 매킨타이어의 의견 차이들.” 『역사신학논총』. 김영재교수은퇴기념논문집: 제7회

## 참고문헌

- 논문발표회 발표논문 (2003).
- \_\_\_\_\_. 『미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홍치모. “Charles Hodge와 그의 시대.” 『신학지남』. 제292호 (2007).
- \_\_\_\_\_. “J. Gresham Machen 교수의 생애와 사상(1).” 『신학지남』. 제252호 (1997).
- \_\_\_\_\_. “미국교회의 보수신앙 운동의 변천: G. M. Marsden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제228호 (1991).
- \_\_\_\_\_. “미국에 있어서 교회사 연구와 서술의 변천: 1888-1998.” 『신학지남』. 제258호 (1999).
- \_\_\_\_\_.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신앙 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세대주의와의 관계.” 『신학지남』. 제286호 (2006).
- \_\_\_\_\_.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 신학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신학지남』. 제226호 (1990).
- \_\_\_\_\_. “미국에 있어서 근본주의운동과 신복음주의운동에 관한 연구동향.” 『신학지남』. 제288호 (2006).
- \_\_\_\_\_. “소위 New-Haven 신학에 대하여.” 『신학지남』. 제283호 (2005).
- \_\_\_\_\_. “장로교 신학의 역사적 계보: 종교개혁에서 한국선교 초기까지.” 『신학지남』. 제174호 (1976).
- \_\_\_\_\_. “프린스톤 신학교 설립의 역사적 배경.” 『신학지남』. 제197호 (1983).
- \_\_\_\_\_. “한국에 있어서의 교회반일치 운동.” 『기독교사상』. 제260호 (1980).
- \_\_\_\_\_. 『영미장로교회사』.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 The Straits Times*. July 01, 2010.
- Christian Beacon*. August 31, 1939.
-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 April 16, 1956.
- 『국민일보』. 2010. 5. 18.
- 『기독신보』. 2008. 5. 18.
- “Culture War.” [http://en.wikipedia.org/wiki/Culture\\_war](http://en.wikipedia.org/wiki/Culture_war).
- “1967년도 신앙고백논쟁.” <http://chportal.christiantoday.co.kr>.
- “Faith Theological Seminary 2009-2011 Catalog.” [http://www.faiththeological.org/images/docs/fts\\_catalog.pdf](http://www.faiththeological.org/images/docs/fts_catalog.pdf).
- “PCUSA 동성애자 성직안수 금지조항 또 삭제.” [http://www.kseattle.com/?document\\_srl=292881](http://www.kseattle.com/?document_srl=292881).
-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adherents.com>.

## 참고문헌

- “SESSION 3:24 April 1870. Dogmatic constitution on the Catholic faith”  
[http://www.dailycatholic.org/history/20ecume1.htm#\\_SESSION\\_3:24\\_April\\_1870](http://www.dailycatholic.org/history/20ecume1.htm#_SESSION_3:24_April_1870).
- “The WCC and the ecumenical movement.” <http://www.oikoumene.org/en/who-are-we/background.html>.
- “美 주류 교단들, 동성애자 성직 임명 두고 견해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9685>.
- “바티칸공의회.”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IdNum=1108](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IdNum=1108).
- “세속화.”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IdNum=1897](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IdNum=1897).
- [http://en.wikipedia.org/wiki/Independent\\_Board\\_for\\_Presbyterian\\_Foreign\\_Missions](http://en.wikipedia.org/wiki/Independent_Board_for_Presbyterian_Foreign_Missions).
- [http://www.americanpresbyterianchurch.org/the\\_schism\\_of\\_1936.htm](http://www.americanpresbyterianchurch.org/the_schism_of_1936.htm).
- <http://www.ibpfm.org/purpose.php>.
- <http://www.iccc.org.sg/html/statements2005.html>.
- <http://www.kwma.org>.
- <http://www.opc.org/whatis.html#I>.

## ABSTRACT

# **AMERICAN PRESBYTERIAN CHURCHES AND FUNDAMENTALISM, 1850-1980**

Park Seung Kyu

This dissertation is an apologetics for the biblical fundamentalism because today there are whole lots of misunderstandings and distorts against the biblical fundamentalism. What is the biblical fundamentalism? It is Christianity itself which is based on the Bible, the Word of God. Today, fundamentalism is used to designate various radical phenomena of religions. For the exact understanding on fundamentalism, it is necessary to know its origin. The term of fundamentalism was derived from American Christianity, not Islam. However, to study on a history of Christian or biblical fundamentalism is much neglected rather than that of Islam's. Especially, the Presbyterian churches has been the battle fields for the controversy between the biblical fundamentalism and the others.

The writer, mainly, has two purposes in this work: (1) To write brief history of fundamentalism. Until today, studies on a history of fundamentalism were stopped at

1937. But it is have to be noted that real history was started in 1937 with Dr Carl McIntire. He was a true successor of the traditions of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and fundamentalism. His spirit is still burn- ing in some Bible-Presbyterian Churches and Far Eastern Bible College in Singapore by Dr Timothy Tow. (2) To remove a false and an unjust accusation that has been attached to the name of fundamentalism. The main is- sues of the controversy between fundamentalism and the other 'ism's are always focused on fundamental doctrines of the Bible. Fundamentalism holds a view of the biblical separation, not infiltration of New-evangelicalism. Fun- damentalism has no connection with 'Christian Right' which is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new-evangelicals and politics to change the world. Fundamentalism must be distinguished from terrorism because fundamentalists are doing their wars for the Bible and fundamental doc- trines in the areas their writings and preaching.

It is true that the true fundamentalists are a minority in this world, even in Christianity. However they fight for the good fighting for the Word of God and for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Fundamentalists hold the truth of the Bible and the traditions of the historical Chris- tianity.

## 저자 소개

총회신학연구원[합동보수] 졸업 (B.A. & M.Div. equiv.)  
싱가포르, Far Eastern Bible College 졸업 (B.R.E., Th.M. in  
Biblical Languages)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M.A. & Ph.D. in History)  
싱가포르, Far Eastern Bible College (Th.D. cand.) 라틴어 강의 중.  
싱가포르, 엘림성경장로교회 담임목사

---

## 미국 장로교와 근본주의

---

2011년 12월 30일 초판

저 자 박 승 규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http://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oldfaith.net](mailto:oldfaith@old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51985-7-5 03230

---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